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위 원 회 당 중 앙 フ 동

제229호 【루계 제24642호】 주체103(2014) 년 8월 17일(일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사

행군길을 끝까지 이어갈것이다

나라에 세차게 휘몰아치고있다.

조선인민군 현합부대 지휘관들의 백두산 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대오가 걸어간 길 로 천만군민이 따라서고있다. 인민군군인들 과 청소년학생들, 근로단체일군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전국당책임일군들이 련이어 백두 산으로 향하고있다.

백두산은 조선혁명의 뿌리가 내리고 조 선의 창창한 미래가 밝아온 혁명의 성지이 며 조선의 혁명적기상과 불멸의 혁명정신 을 한품에 안고있는 유서깊은 산이다.

오늘 백두산은 우리 인민과 온 겨레, 진 보적인류의 마음속에 신념의 산악, 승리의 표대로 억세게 자리잡고있다.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이 백두산을 우러르며 필승의 신심을 가다듬고있으며 백두의 기상,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만난을 뚫고나가고있다. 백두산과 같은 혁명의 성 산을 가지고있는것은 조선의 자랑이며 민 족의 더없는 영광이다.

지금 우리 군대와 인민의 마음과 마음은 백두산으로 끝없이 달려가고있으며 항일의 혈전장을 진감하던 백두의 칼바람소리가 천 만심장을 혁명열, 투쟁열로 끓게 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이 걸어온 력 사는 우리 혁명이 백두에서 개척되여 오늘까지 승리하여온 영광넘친 로정이 며 바로 이 길이 우리가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계속 걸어나가야 할 영원한 승

리의 길, 조국번영의 길이다. »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백두산지구 혁명 전적지답사행군길을 개척하신 때로부터 근

6 0년의 오랜 세월이 흘러갔다. 이 나날은 우리 군대와 인민이 력사의 온 갖 풍파속에서도 오직 당과 수령을 따라, 백두의 행군길을 따라 억세게 걸어온 영광 스러운 로정이며 백두산과 더불어 우리 조 국의 존엄과 영예가 온 누리에 힘있게 떨쳐 진 긍지높은 행로이다. 우리는 제국주의자 들의 악랄한 침략전쟁책동도 백두의 기상 과 담력으로 짓부셔버렸고 사회주의건설의 시대적모범도 백두의 자력갱생정신으로 창 조하였다. 세기는 바뀌고 세대도 여러번 교 체되였지만 주체혁명, 선군혁명의 피줄기가

Н _

대와 인민은 일찌기 백두산에로의 답사행 군길을 개척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심장깊이 절감하고있다.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을 불굴의 혁명가, 영웅적인 군대와 인 민으로 키우는 혁명대학이다.

오늘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각별한 판심과 기대, 세심한 보살피심속에 더욱더 활발하 게 진행되고있다.

지난해 삼지연혁명전적지를 찾으시여 혁 명전적지, 혁명사적지답사의 중요성을 강조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올해 3월 적들의 침략전쟁책동이 극도에 이르고있던 첨예한 시기에 조선인민군 련합부대 지휘관 들을 백두산전구로 불러주시고 온 나라에 혁 명전통교양의 불바람이 세차게 휘몰아치도 록 해주시였다. 여기에는 우리 군대와 인민 이 백두의 공기로 마음을 씻고 백두의 칼바 람맛을 실감하며 백두의 혁명전통이야말로 조선혁명의 영원불멸할 생명선이라는것을 뼈 와 살로 깊이 새기도록 하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이 담겨져있다.

백두의 혁명전통을 견결히 고수하고 대 를 이어 빛내이며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최 후승리를 앞당겨오시려는것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확고부동한 의지이다. 우리는 그 어떤 천지풍파가 닥쳐와도 오늘의 빨찌산 김대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 따라 백두의 행군길을 굴함없이 걸어나가 야 한다.

백두의 행군길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사상과 위업을 끝까지 실현해나가기 위한 성스러운 길이다.

지금 우리는 주체혁명위업수행의 중대하 고도 책임적인 시기에 살며 투쟁하고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사상과 위업의 빛나는 실현, 이것이 오늘의 우리 세대가 맡고있는 더없이 영예로운 임무이며 혁명적본분이다.

오늘 우리 당이 이끄는 백두의 행군길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주체의 태양으로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모시는 숭고한 도덕 의리의 길이며 주체혁명, 선군혁명의 최후 승리와 잇닿아있는 영광넘친 길이다.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슬하에서 귀중한 정치 적생명을 받아안고 혁명하는 법을 배우며 자라난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있어서 백두의 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야 할 길, 세월 이 흐르고 세대가 열백번 바뀌여도 영원히 변할수 없는 주체의 항로가 바로 백두의 행군 길이다. 이 길에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후손,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전사, 제자로서 의 고귀한 삶이 있고 우리 조국과 민족의

창창한 미래가 있다. 어버이수령님 따라 시작하고 위대한 장군님 따라 승리떨쳐온 백두의 행군길을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꿋꿋이 이어 가려는 천만군민의 신념은 억척불변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한길로 곧바로 억 세계 걸어나감으로써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사상과 위업을 빛나게 실현해나갈것이다.

백두의 행군길은 우리 조국을 존엄높고 강위력한 백두산대국으로 세계에 높이 떨 치기 위한 영웅적투쟁의 길이다.

백두의 행군길, 이 길에서 우리 조국과 민 족의 존엄과 영예는 최상의 경지에 올라섰 으며 우리 식 사회주의는 가장 공고하고 위 력한 불패의 보루로 다져졌다. 수령을 중심 으로 한 당과 군대와 인민의 일심단결과 강 력한 전쟁억제력을 갖춘 무적필승의 혁명강 군,새 세기 산업혁명의 불길드높이 기운차 게 전진하는 자립적민족경제와 사회주의문 명국건설의 튼튼한 물질기술적토대와 잠재 력, 이 모든것이 백두의 행군길을 이어오는 력사적투쟁속에서 마련되였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많은 나라들이 혁명의 길에서 탈선 하고 력사와 전통의 순결성을 고수하지 못 한탓으로 치욕과 불행을 겪고있는 현실을 목 격하면서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가는 길 이 천만번 옳다는것을 심장깊이 새기였다.

지금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 력사의 온갖 반동들은 어떻게 하나 우리의 전진을 가로 막고 우리 공화국을 붕괴시키기 위하여 최 후발악하고있다. 군사적침략책동과 외교적 압력. 경제기술적봉쇄와 심리모략전을 비롯 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있다.

원쑤들은 우리가 왜 사선을 헤치면서도, 굶어 쓰러지면서도 대를 이어 백두의 행군 길을 가고 또 가는지 절대로 리해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 인민은 밥 한술 더 뜨자고 수 십년동안 걸어온 혁명의 길에서 물러설 인 민이 아니며 굴욕과 노예의 운명을 강요당

더 힘차게 전진할것이며 이 길에서 우리 군 대와 인민은 백전백승만을 펼쳐갈것이다.

백두의 행군길은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영원한 존엄과 승리, 강성번영의 진로이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혁명생애로 빛나는 백두의 행군길을 끝까지 변함없이 이어나감으로써 우리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반드시 이룩하여야 한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혁명사상과 혁명 업적을 심장깊이 체득하여야 한다.

가장 간고하고 준엄하였던 조선혁명을 승 리에로 이끄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혁명사 상과 혁명업적은 백두의 행군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할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있어서 더없이 고귀한 사상정신적재부로 된다.

모든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혁명력사를 깊이 학습 하여 우리가 가는 백두의 행군길이 어떻게 개척되고 이어져왔으며 조선혁명이 어떤 험 산준령들을 넘으며 전진하여왔는가를 똑바 로 알아야 한다. 불후의 고전적로작들과 당 문헌들에 대한 학습을 강화하여 주체사상, 선군사상의 절대적진리성을 깊이 체득하며 우리 당의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한다. 그 어떤 천지풍파가 닥쳐와도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지니셨던 혁명적신념과 의지, 배짱으로 만난을 헤치고 수령님식, 장군님식대로 혁명과 건설을 밀고나감으로써 백두의 대업을 빛나게 실현해나가야 한다.

누구나 백두산을 알고 백두의 혁명정신 을 자기의 뼈와 살로 새겨야 한다. 백두산지구의 산발들과 강줄기마다에는

우리 혁명의 영광스러운 력사와 전통이 깃들어있으며 항일혁명선렬들의 피와 넋, 숭고한 투쟁정신이 어려있다. 선군조선의 혁명가라면 누구나 백두산에도 올라보고 항일선렬들의 발자취를 따라 행군도 하며 백두의 혁명정신을 체질화하여야 한다.

우리는 혁명이 심화되고 정세가 준엄할 수록 백두산에 올라 선군조선의 혁명적기 상을 체험하고 백두산칼바람으로 신념의 칼날을 더욱 억세게 벼려야 한다. 백두산지 구 혁명전적지답사가 수령의 위대성을 알 고 우리 당의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하 며 항일유격대식사업기풍, 생활기풍을 확립 백두의 풀물오른 군복을 입고 군용밥통으 로 밥도 짓고 천막에서 숙영도 하면서 위대한 수령님의 고귀한 혁명생애와 우리 당의 혁명전통의 귀중성을 깊이 새겨야 한 다. 답사행군의 전 로정이 강의한 혁명정신 과 불굴의 기개, 높은 조직성과 규률성, 고 상한 집단주의정신을 키우고 백두의 행군 길을 끝까지 이어갈 의지를 더욱 공고히 하 는 의의깊은 나날로 되게 하여야 한다. 백 두산지구의 조약돌 하나, 나무 한그루도 무 심히 대하지 말아야 하며 밀영과 숙영지 들, 구호문헌들에 깃들어있는 사적내용에

대한 학습도 잘하여야 한다. 항일유격대원들의 사상정신세계를 적극 따라배우는것이 중요하다.

항일혁명투사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 시련에 찬 투쟁의 길, 백두의 행군길을 개 척하고 어떤 역경속에서도 승리적으로 전 진시켜온 우리 혁명의 1세들이다. 피어린 항일전의 나날 혁명선렬들이 발휘한 투쟁 정신을 자자손손 빛내이며 계승해나가는데 백두의 행군길을 끝까지 이어나갈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있다.

항일혁명투사들의 사상정신세계에서 근 본핵은 수령결사용위정신이다. 전체 당원들 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항일혁명투사들 처럼 천겹만겹의 성새, 방패가 되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 와 금수산태양궁전을 목숨으로 결사보위하 여야 한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 밖에는 그 누구도 모른 항일혁명투사들의 투철한 혁명적수령관, 견결한 원칙성을 절 대불변의 신념으로 삼고 경애하는 원수님 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며 조선혁명의 명 맥인 백두의 혈통을 끝없이 빛내여나가야 한다. 자그마한 사심도 가식도 없이 오직 당과 혁명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친 항일 혁명선렬들의 숭고한 풍모를 귀감으로 삼 고 하루하루를 순결한 량심과 의리로, 불같 은 충정으로 수놓아가야 한다.

백두밀림에서 창조된 연길폭탄정신, 소왕 청과 처창즈의 결사항전의 정신은 오늘의 총진군의 힘있는 추동력이다. 우리는 제국 주의자들의 악랄한 제재봉쇄책동을 자력갱 생의 위력으로 단호히 쳐갈겨야 하며 온갖 애로와 난판을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뚫 고나가야 한다. 꺾이면 꺾일지언정 굽히지 며 사선도 헤쳐나가는 혁명적동지애와 대중 적영웅주의, 오늘을 위한 오늘이 아니라 래 일을 위한 오늘에 사는 숭고한 인생관과 혁 명적락관주의가 온 나라에 꽉 차넘치게 하 여야 한다. 누구나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라는 구호를 높이 들 고 언제 어디서나 혁명적으로, 전투적으로 살며 싸워나가는 오늘의 조선인민혁명군 대 원, 백두산형의 투사가 되여야 한다.

일군들과 근로자들, 자라나는 새 세대들 이 백두의 행군길을 꿋꿋이 이어나가도록 혁명전통교양의 된바람을 일으켜야 한다.

당 및 근로단체조직들에서는 혁명적인 사 상공세가 벌어지는 격동적인 현실의 요구에 맞게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백두의 혁명전통 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교양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진공적으로 벌려나가야 한 다. 위대한 수령님의 항일무장투쟁사가 집 대성되여있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와 항 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들에 대한 학습 을 심화시켜나가야 한다. 혁명전적지, 혁명 사적지들에 대한 답사를 항구적인 사업으로 틀어쥐고 계획적으로, 정상적으로 조직진행 하여야 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 답사 행군의 목적과 중요성을 톡톡히 알려주고 그들이 답사준비를 잘하도록 하여 답사행군 이 한생의 귀중한 체험으로, 하나의 혁명대 학을 나오는 과정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

청소년들은 백두의 행군길을 대를 이어 끝까지 걸어가야 할 혁명의 계승자들이며 앞날의 주인공들이다. 혁명성은 결코 유전 되지 않으며 저절로 높아지는것도 아니다. 우리는 새 세대들이 어려서부터 백두의 눈 보라를 헤치고 피어린 항일의 전구들을 직 접 밟아보면서 오늘의 행복이 어떻게 마련 되였으며 조국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를 심장깊이 새기게 하여야 한다. 새 세대 들속에서 혁명전통교양을 끊임없이 강화하 고 그들을 혁명실천속에서 부단히 단련시 킴으로써 혁명의 대가 굳건히 이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백두산이 우리의 행군길을 지켜보고있으며 백두산발에 높이 울리던 진격의 나팔소리가 천만군민을 최후승리에로 부르고있다.

모두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백두에서 시작된 주체의 행군길 을 따라 끝까지 힘차게 싸워나가자!

할 인민은 더욱 아니다. 백두의 행군길과 꿋꿋이 이어지고 백두의 붉은기가 변함없이 털 리 며 丌세좋게 즈 사 겨 재 응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가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력공업, 석탄공업을 확고히 앞세워야 합니다.》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비약의 불바 람을 세차게 일으킬데 대한

덕천지구탄광련 합기업소에서

덕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의 탄부들이 석탄증산의 불길을 세차게 지퍼올리며 힘차게 전 진하고있다.

은 모든 탄광들에서 월 석탄 생산계획을 높이 세우고 당 및 행정경제일군들과 근로단 체조직들을 발동하여 그날과 제는 그날로 어김없이 수행하 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 고있다.

현장에 내려간 일군들은 탄 부들과 함께 석탄도 캐고 탄 차도 밀면서 걸린 고리들을 앞질러가며 풀어나가고있다. 이들은 석탄증산목표수행을 위한 생산총화를 실속있게 하 고 앞선 단위들에 대한 평가 사업을 의의있게 진행하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들어 생산자 대중의 앙양된 열의를 적극 불러일으키고있다.

일군들은 덕천탄광기계공 장의 로동자들속에 들어가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 탄 광들에 필요한 설비,자재,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하결같이 떨쳐 나선 덕천지구탄광련합기업 소와 개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 의 일군들과 탄부들이 사회 주의증산경쟁을 힘있게 벌리 며 기세좋게 전진하고있다.

부속품을 원만히 생산보장하 도록 하고있다. 공장에서는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탄차바퀴,대치차, 련합기업소의 책임일군들 소치차, 탄차축, 소공구 등을 꽝꽝 생산하여 탄부들에게 보내주고있다.

> 석탄증산목표를 무조건 수행 하도록 생산조직과 지휘를 짜 고들고있다. 일군들은 탄부들 의 생산의욕을 높여주기 위한 중대별사회주의증산경쟁을 실정에 맞게 조직하여 탄부들 의 앙양된 열의를 적극 불러 일으키고있다. 5갱과 10 갱, 6갱, 3갱의 일군들과 탄 부들은 앞선 채탄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매일 높이 세운 석 탄생산목표를 넘쳐 수행하는

제남탄광에서는 높이 세운

성과를 거두고있다. 형봉탄광의 일군들과 탄부 들이 석탄증산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다. 일군들은 현 장에서 생산조직과 지휘를 능 숙하게 하면서 모든 갱들에서 련대적혁신의 불길이 타오르 도록 화선식정치사업을 드세 게 벌리고있다. 그리하여 중 동갱, 솔골갱, 대성갱, 형봉갱 의 모든 채탄중대들에서 석탄 증산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 고있다.

덕성탄광의 일군들과 탄부 들은 서로 돕고 이끄는 집단 주의정신을 높이 발휘하며 석탄생산성과를 계속 확대해 나가고있다. 탄부들은 사회 주의증산경쟁이 힘있게 벌어 지는 속에서도 다음교대를 위해 막장설비들에 대한 점 검보수를 책임적으로 진행하

개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에서

련합기업소에서는 굴진을 앞세워 예비채탄장을 넉넉히 마련하면서 매장량이 많고 채 굴조건이 유리한 갱막장들에 힘을 집중하여 일 석탄생산량 을 늘여나가고있다.

탄광들에 내려간 일군들은 채탄중대들의 생산실태와 설 비, 자재, 부속품보장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고 탄차와

공공건물건설

천 2 호 발 전 소 건

는 집단주의미풍을 높이 발 휘해나가고있다. 이러한 속 에 2갱, 1갱들에서 매일 석 탄증산목표보다 더 많은 석 탄을 캐내는 성과를 이룩하 고있다.

하고있다.

개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에 서 석탄생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련합기 업소참모부에서는 부서, 과들 의 성원들로 갱,채탄중대들 에 대한 담당제를 내오고 모 든 일군들이 탄부들과 힘을 합쳐 석탄증산의 돌파구를 열 어나가도록 하고있다.

조양탄광의 일군들과 탄부

덕천탄광 청년갱, 남신갱, 서창청년탄광 2갱, 1갱을 비롯한 갱들에서도 당앞에 다 진 석탄증산목표를 기어이 돌 파할 불같은 열의를 안고 채 탄에 총력량을 집중하여 그날 과제는 그날로 어김없이 수행 하는 혁명적기풍을 높이 발휘

탄차바퀴 등을 제때에 보장하 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어 진 행해나가고있다.

련합기업소의 일군들은 사 회주의증산경쟁총화를 의의 있게 조직하여 탄부들의 생산 의욕을 부쩍 높여주고있다. 석탄생산의 앞장에는 련합기

업소의 석탄생산에서 큰 몫을 맡고있는 봉천탄광이 서있다. 탄광의 일군들은 석탄생산 을 높일수 있는 여러가지 조 건들을 충분히 타산한데 기초 하여 작전과 지휘를 짜고들어 일 석탄생산계획을 무조건 수 행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해놓았다. 봉천갱, 2갱

을 비롯한 갱들에서는 탄상조

건에 맞는 여러가지 합리적인

채탄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고

장 에 서

운반능력을 높여 계획보다 더 많은 석탄을 생산하는 혁신을 일으켜나가고있다.

저 지

들이 모든 예비와 가능성을 총동원하여 석탄생산을 힘있 게 밀고나가고있다. 일군들은 1 갱, 3 갱, 청년갱을 비롯하 여 생산량이 많은 갱들에 나 가 채굴조건과 막장설비가동 정형 등을 료해하고 해당한 대책을 세워나가고있다. 특히 갱들에서 운반선로들에 대한 정비보수를 정상화하고 전 차, 탄차들의 만가동을 보장 하여 매일 계획보다 1.2배 의 석탄을 생산해내도록 하고 있다.

사회주의증산경쟁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지는 속에 자강도 공급탄광의 청년갱, 람전갱, 1 갱, 2 갱의 일군들과 탄부들 은 높이 세운 석탄생산목표를 돌파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성과를 거두고있다. 이곳 갱들에서는 교대가 교대를 돕 는 집단주의미풍을 높이 발휘 하여 매일 석탄생산량을

1. 2배로 끌어올리고있다. 개천탄광 서재갱,종합중 대, 무진대청년탄광 2갱, 신 흥갱들에서도 자력갱생의 혁 명정신을 높이 발휘하며 석탄 증산투쟁을 힘있게 벌려 화력 발전소들에 더 많은 석탄을 보내주고있다.

특파기자 리 혁 철

맡은 살림집내부마감 공사도 동시에 내밀고 있다. 청진제 강소중대 와

유선탄광중대에서도 맡겨진 대상건설에서 실적을 살림집과 공공건물건설이

생기령광산중대, 청진시,

온성군,경원군중대의 전투 원들은 뜨거운 애국의 마음 으로 나무심기, 잔디심기를 힘있게 내밀고있다. 일군들과 건설자들의 헌신

특파기자 리은 남

삼지연읍지구에서 지열수를 찾아냈다

국가자원개발성 일군들과 각 도탐사대원들

국가자원개발성 일군들과 탐사공학연구소의 연구사들 그리고 중앙물리탐사단, 남포 수문지질탐사대, 량강도탐사관 리국 남사강지질탐사단의 탐 사대원들이 삼지연읍지구에서 지열수를 찾아내는 성과를 이 룩하였다.

삼지연읍지구에서 지열수를 찾아냄으로써 삼지연학생소년 궁전에 지열난방체계를 도입할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 말씀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돌파구가 열리였고 혁명전적지 와 혁명사적지, 군안의 공공건 물과 살림집들에도 지열난방화 를 실현할수 있는 기술적담보가 마련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올해 우리의 투쟁은 인민 의 아름다운 리상과 꿈을 앞 당겨 실현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이며 영광스러운 조선로 동당창건 70돐을 빛나게 장식할 대축전장과 잇닿아있 는 승리자의 진군입니다.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지난해 11월 삼지연학생소년 궁전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삼지 연은 겨울이 빨리 찾아오고 오 래 지속되는 계절적특성이 있는 것만큼 겨울철에도 학생들이 과

외소조활동을 지장없이 할수 있 게 궁전의 실내온도보장조건을 잘 세워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지열난방체계를 도입하여 온도 보장문제를 원만히 풀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지도 소식에 접한 성일군들은 지난 해 12월초 현지로 달려나가 지열난방체계를 도입하는데서 관건적인 문제인 지열수원천탐 사를 위한 실무적협의를 가지 였다.

그 과정에 우리 아이들을 위한

일이라면 억만금도 아끼지 않으 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지니신 숭고한 후대관에 대하여 가슴뜨겁게 새겨안으며 삼지연일 대에서 지열수를 반드시 찾아낼 불타는 결의를 가다듬게 되였다. 지난 1월 성일군들은 국가과 학원의 연구사들, 중앙물리탐사 단 기술자들과 함께 삼지연지구 로 나가 자력, 중력, 초장파탐사 를 비롯한 종합적인 물리탐사를

추공위치를 확정하였다. 성일군들과 지질탐사대원들 이 삼지연읍지구에 대한 본격적 인 지열수람사에 진입한것은 4월부터였다.

진행하여 지열수를 얻기 위한

삼지연지구에서 지열난방화를

는것은 백두산지구의 복잡한 지 질구조로 하여 어려운 문제였다.

하지만 성일군들과 남포수 문지질탐사대, 량강도탐사관리 국 남사강지질탐사단 탐사대 원들은 난판앞에서 추호의 동 요나 주저를 몰랐다. 이곳 일 군들과 탐사대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미래사랑, 후대사랑

도 꽃을 피워야 한다는 투철한 사상적각오를 가지고 난관을 맞받아뚫고 시추성과를 확대 해나갔다. 특히 성아래 탐사공학연구소 의 연구사 정호동무는 다계단보 벽에 의한 새로운 시추공법을 창안도입함으로써 이 지구의 복

잡한 지질구조에서도 시추작업

을 꽃피우는 일이라면 돌우에

을 성과적으로 보장할수 있는 과학적담보를 마련하였다. 본격적인 시추작업이 시작되 여 석달 남짓한 기간이 지난 7월 26일 삼지연학생소년궁전 과 삼지연군문화회관의 지열난 방화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지열 수를 찾아내였다.

현지에서 진행된 국가과학기 술심의에서 성일군들과 각 도수 문 및 지질탐사대원들이 찾아낸 지열수로 지열난방화를 할수 있 다는 결과가 발표되였다.

본사기자 강명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인민들의 수요가 높은 질좋은 양말생산에서 양양말공장에서 -본사기자 전성남 찍음

Ö

Н

어랑천발전소건설에 참가한 함경북도의 당원 들과 근로자들이 어랑천 2호발전소 살림집 및 공 공건물건설에서 혁신을

창조하고있다. 이곳 건설자들은 어랑천2호발전소 종업원들을 위한 1단계 살림집건설을 성과 적으로 끝낸데 이어 2단계 살 림집과 공공건물건설을 마감단 계에서 힘있게 벌리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같이 지적하시였다. 《합경북도에서 어랑천2 호발전소건설까지 끝내면 어랑천발전소건설은 다 먹 은셈입니다. 》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어랑천발전소건설장을 여러 차례 찾으신 어버이장군님께서는 어랑천 2 호발전소는 위치도 좋고 실리주의원칙을 철저히 구현하여 설계를 잘하였다고 하시면서 먼 후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게 건설의 질을 최 상의 수준에서 보장하여야 한

다고 가르쳐주시였다. 어버이장군님의 원대한 뜻 을 현실로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어랑천2호발 전소건설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발전소건설을 다 그쳐 끝내도록 은정깊은 조치 를 다 취해주시였다.

함경북도당위원회에서는 어버이장군님의 유훈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을 높이 받들고 전력생산자들을 위한 살림집 과 공공건물건설을 어랑천2 호발전소 조업전으로 다그쳐 끝낼 높은 목표를 세우고 이 사업을 적극 내밀고있다.

일군들은 건설장에 내려가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화 선식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 면서 전력생산자들이 리용할 살림집과 공공건물들을 먼 후 날에도 손색이 없게 일떠세우 도록 요구성을 높이고있다. 건설지휘부의 일군들도 건

설물들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감독사업을 책임적으로 해나

가고있다.

앞장에 도청년돌격대려단이 서있다. 려단의 지휘판들과 돌격대원들은 력량을 집중하 여 유치원과 종합편의시설건 설을 한달이라는 짧은 기간에 와닥닥 다그쳐 끝낸데 이어 맡은 살림집골조조립과 지붕 공사를 힘있게 내밀어 완공기 일을 앞당겨나가고있다.

김책제철련합기업소대대의 전투원들은 자재와 로력이 부 족한 조건에서도 교대조직과 시공조직을 짜고들어 학교를 짧은 기간에 일떠세웠다.성 과에 자만을 모르는 이들은

살림집과 공공건물건설의 내고있다.

힘있게 진척되는것과 동시에 주변지대정리와 잔디심기도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적인 투쟁에 의하여 살림집과 공공건물건설은 빠른 속도로 힘있게 진척되고있다.

《선군은 우리의 자주이고 존엄이며 생명입니다.》김정은

5 0 여년전까지만 해도 이름없는 농촌마 을에 불과하던 이곳이

이제는 뜻깊은 선군절

을 떠올린 력사의 땅

선군혁명령도의 위대한 력사를 더듬어

쌍 운 리 로 부 러 다 박 솔 언 덕 에 이 르 기 까 지

으로 온 나라에 소문 나고 세상이 다 알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체49(1960)년 8월 25일 쌍운리에 자리잡고있던 조선인민군 근위 서울류경수제 1 0 5 땅크사단에 선군혁명령도의 첫 자욱을 새기신것은 선군혁명위업의 계승과 선군령도의 새 출발을 선언 청년장군 김정일동지! 한 력사적사변이였다.

편운산봉우리에 걸려 흩어졌던 구 름이 도운산에서 모아지면 가물에 탄 대지를 적셔주며 단비가 내린다고 하 여 쌍운리로 불리워왔다는 이 고장이 어버이장군님의 위대한 혁명령도의 길에서 태여난 선군이라는 말의 무제 를 고이 간직한 때로부터 우리 조국은 얼마나 장엄하고도 가슴벅찬 승리와 영광의 길을 자랑스럽게 걸어왔던가.

우리 장군님의 위대한 선군혁명 령도의 닻이 오르던 력사의 첫 기슭 에 쌍운리라는 사연깊은 고장이 소 중히 자리잡고있다면 선군정치의 전 면적실현의 시작을 알리던 1990 년대 중엽에는 다박솔언덕이 그와 쌍 벽을 이루고 선군의 메부리마냥 빛 을 뿌리고있다.

쌍운리와 다박솔언덕, 서로 대표하 는 시기도 다르고 내용도 구별되며 지명도 차이나지만 이 두 지점은 다 같이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 을 구획지어 전하는 선군혁명의 봉 우리들인것이다. 그것은 반만년민족 사에 특기할 위대한 승리의 분수령 이 어떻게 이 땅에 솟아오르고 부강 번영할 조국의 래일이 무엇으로 마 련되는가를 웅변적으로 전해주는것 으로 하여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 더 없이 소중히 새겨져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참으로 선군은 장군님께서 한평생 간직하고 구현 해오신 드립없는 혁명신조였으며 조국청사에 빛나는 승리와 불멸의 업적을 수놓으신 위대한 혁명실천 이였습니다. »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사는 그자체가 혁명무력건설의 빛나는 모 범으로, 귀중한 교본으로 되고있다.

지금도 잊지 못할 주체4 9(1 9 60)년 8월 25일의 사연을 전하는 쌍운리혁명사적지에 서면 천출명장 의 품격과 자질을 지니시고 조선인 민군 근위 서울류경수제 1 0 5 땅크 사단을 찾으시여 선군혁명령도를 시 작하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걸출한 위인상이 뜨겁게 안겨와 누구나

끓어오르는 격정을 금치 못한다. 력사에 길이 빛날 선군혁명령도의 첫 자욱을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깃든 강철의 땅크사단에 새기시며 인민군군인들의 심장속에 부터 먼저 들어서신 위대한

누리를 밝히는 태양의 모습, 선군 혁명의 먼 앞날까지도 내다보는 예지로 빛나는 영채로운 안광,세월 을 주름잡는듯싶은 젊음에 넘친 활달하신 걸음새…

우리 인민들속에서 그 비범성과

천출위인상에 대한 일화로 전설처럼 널리 전해지던것보다 더욱 출중한 모습이신 10대의 청년장군 우리 장군님을 우러르는 사단장병들의 열 팡의 환호는 병풍처럼 뻗어간 산발 들을 쩡쩡 울리며 메아리쳤다. 이날 그이께서는 한없이 겸손하신 인품으 로 사단장사무실로, 교양실과 군인회 판으로 선군령도의 자욱을 이어가시 였다. 어제도 오늘도 래일에도 영원 히 변함없을 혁명군대의 사명과 군 건설의 총적목표와 방향에 대한 새 로운 정식화를 주시면서 단순한 군 사리론적발견에 앞서 말그대로 하나 의 정치적사변과도 같은 독창적인 경 륜으로 선군혁명령도의 첫 자욱을 새겨가시는 위대한 청년장군을 우려 르며 투사들도 일군들도 시종 경탄 의 무아경에 잠겨있었다.

혁명군대는 총을 잡고 적과 싸우 는 무장집단이기 전에 총대로 조국 의 운명인 당과 수령을 결사옹위하 는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로 되여야 한다는 혁명무력건설의 근본원칙이 제시되고 수령님의 현지교시관철, 사상사업을 앞세워 인민군대를 수령 옹위의 제일결사대로 키우기 위한 주체적인 군건설의 새로운 장이 펼 쳐지던 우리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 시작의 그 사연뿐이 아니라 천만군 민의 가슴속에 눈물겹게 새겨져있는 줴기밥의 력사도 바로 여기 유서깊 은 혁명사적지의 너럭바위우에서 잊 지 못할 그 8월 25일부터 시작되 였음을 쌍운리는 얼마나 가슴뜨겁게 전해주고있는것인가.

룟남산언덕에 오르시여 력사의 맹세 를 다지시기에 앞서 쌍운리의 조선 인민군 근위 서울류경수제 1 0 5 땅 크사단에 선군혁명령도의 뜻깊은 첫 자욱을 새기시며 선군으로 주체혁명 위업을 완성할 철석의 신념을 가다 듬으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거룩한

모습을 인민은 영원히 잊지 못한다. 그날의 위대한 장군님의 모습은 정 녕 첫 당조직건설에 앞서 무장투쟁 로선을 내놓으시고 백두의 수림속에 서 주체형의 첫 혁명적무장력인 조 선인민혁명군의 창건으로 선군혁명 령도의 첫걸음을 내디디시였으며 해방후 국가건설에 앞서 정규적인 혁명무력부터 먼저 건설하신 어버이수령님의 걸출한 위인상그대로 이시였다.

일찌기 위대한 백두산장군가문의 응대한 뜻을 이어받으시여 력사무대 에 나서신 우리 장군님의 한생은 사 실 얼마나 비범하게 흘러왔던가.

세계가 찬탄하고 만민이 우러르는 절세의 위인이신 우리 장군님이시지 만 그이께서는 자신을 군인이라 하 시며 위대한 군인의 성스러운 한생 을 수놓으시였다.

위대한 군인의 한생, 바로 여기에 선군을 만능의 보검으로 틀어쥐고 세 계자주화위업과 사회주의위업을 견결 히 수호하시며 빛나는 승리의 하길로 이끄신 위대한 장군님의 거룩한 혁명 생애에 대한 력사적총화가 있다.

쌍운리와 선군의 인연을 맺은 어은혁명사적지의 령군봉은 오늘도 혁명의 총대로 김일성조선의 영광을 온 누리에 떨치신 천하제일명장, 백두령장의 천재적예지와 뛰여난 령군술을 숭엄히 전하고있다. 위대한 군인의 한생으로 수놓아진 우리 장군님의 병사시절, 총잡은 청춘시절 이 이곳에서 비범하게 흐른것이다. 령장의 지혜와 용맹도 병사생활에서 움트고 장군의 어깨우에 빛나는 금 별도 병사생활의 땀으로 빚어져야 한다는 걸출한 선군령장의 유명한 명제가 새겨진 력사의 땅 어은동에 서 사람들은 청년장군시절의 우리 장군님의 전설같은 병사생활의 인생 체험기를 보게 되며 불멸의 군사 사상리론과 탁월한 령군실천, 태양의 인덕으로 빛나는 숭고한 위인상을 가 슴에 새기게 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몸소 사격하신 보병총과 전설적인 명 사격술을 보여준 목표판앞에 서면 군 사를 모르는 정치가는 진짜정치가가 아니다, 현대정치가의 권위와 역할, 그의 실력은 비상한 군사적지략과 담 력, 뛰여난 령군술에 있다, 나는 군사 제일주의를 주장한다. 나는 무엇보다 도 총대를 중시하고 언제나 총대를 제일시한다는것을 숨기지 않는다. 나 칼부림에 끝까지 총대로 맞설것이다 라고 선언하시던 20대 청년장군의 음성이 금시 귀전에 들려오는듯싶어 누구나 쉬이 발걸음을 뗴지 못한다. 이렇듯 총대로 개척하신

어버이수령님의 혁명위업을 총대로 기어이 완성하시려는 백두산위인의 불변의 선군의지가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강령이며 전군 김일성주의화방침 그리고 세계를 경 탄시킨 미제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 나포작전,미제의 대형간첩비행기 《EC-121》격추작전을 비롯한 인민 군대의 수많은 군사작전들마다에서도 얼마나 세차게 맥박치고있는것인가.

력사는 그때 쌍운리의 조선인민군 근위 서울류경수제 1 0 5 땅크사단에 서 시작되고 시대의 흐름속에서 심 화발전되여온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 혁명령도가 하나의 완전한 국가정치 방식을 탄생시키고있음을 알리고있 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군건설과 군사활동에서 쌓으신 탁월한 업적과 그이께서 지니신 남다른 정치군사적실력에 탄복하시여 당과 함께 인민군대사업 을 직접 맡아 지도할데 대한 중임을 맡겨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당 과 군대사업을 직접 맡아 지도하시게 됨으로써 선군의 정치리념을 전사회 적범위에서 구현해나가는 선군정치 가 시작되게 되였다. 어버이수령님의 총대중시, 군사중시사상을 심화발전시 키시여 선군의 진리를 밝히시고 그것 을 핵으로 하여 새로운 사회주의의 기 본정치방식을 완성하여 세상에 내놓 으신것은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만이 이룩하실수 있는 최대의 공적이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주체혁명위업 의 확고한 승리를 락판하시며 당중앙 위원회 제 6 기 제 1 9 차 전원회의에 서 위대한 김정일동지께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중임을 맡겨주시였다. 이전 동유럽사회주의나라들에서 탁월한 수령을 만나지 못하여 붕괴 의 진통을 겪고있던 때 우리 나라 에서는 최고사령관의 군직이 또 한분의 걸출한 선군령장께로 굳건히 계승되고있었던것이다.

그날은 주체 8 0 (1 9 9 1)년 1 2월 24일이였다. 다음날인 1 2 월 25일 근 70년간 사회주의혁 명의 보루로 서있던 이전 쏘련에서 붉은 기발이 서서히 내리워졌다는 사 실은 선군이야말로 나라와 민족의 자 주이고 존엄이며 인민의 생명이라는

1990년대는 우리 당의 선군정 치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고난과 시 련속에서 검증하는 엄혹한 시기였 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선군정치의 보검으로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새 력사를 펼치시기 위하여 주체 84(1995)년 1월 1일 다박솔 초소로 향하시였다.

이 나라의 이름없는 봉우리였던 다박솔언덕,

선군정치의 새로운 장을 펼칠 력 사의 새벽노을이 바로 여기에서 타 번지기 시작하였다. 장장 수십성상으 로 수놓아진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 혁명력사에서 다박솔초소에 대한 현지시찰은 한걸음에 불과하였다. 하 지만 그것은 우리 혁명에서 비상한 의의를 가지는 위대한 선택이였다.

돌이켜보면 위대한 장군님께서 다 박솔초소를 찾으시던 1990년대 중엽처럼 우리 혁명이 엄혹한 환경 에 처해보기는 력사상 처음이였다.

총대로 우리 수령님의 영생을 지켜드리시기 위하여, 총대로 아이들 의 웃음과 행복을 꽃피워주시기 위 하여, 총대로 조국과 민족, 사회주의 운명을 수호하시기 위하여 다박솔초 소를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의 그날 의 모습을 사람들이여, 경건히 우려 러보시라.

우리 당에 무한히 충실한 강대한 인민군대가 있는 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할수 있다는것은 확정적 이라고 힘있게 말씀하시던 선군령장 의 그 우렁우렁하신 음성이 세기의 언덕을 넘어 우리 군대와 인민의 귀 전에 쟁쟁히 울리고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주체 8 4 (1 9 9 5)년 다박솔초소에 대한 현지시찰 은 자신의 정치는 군사를 중시하는 정치이고 사회의 어느 집단보다도 인 민군대를 선차적으로 강화하는 정치 라는것을 그 어떤 연설이나 엄숙한 선언이 없이 온 세상에 알린 력사적 사변이였다. 어버이장군님의 그날의 현지시찰

이 한 나라, 한 민족을 엄혹한 시련 속에서 구원하고 세계사회주의위업 을 수호한 위대한 장거이며 선군정 치를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전면적 으로 실현해나가는 력사적인 계기로 되리라는것을 아직은 누구도 알수 없 었다.

선군정치의 전면적실현의 시작을 알리는 다박솔언덕의 오솔길에서

위대한 승리, 부강번영의 대통로가 쭉쭉 뻗어나갔다.

쌍운리의 근위땅크부대에 빛발치 던 선군의 의지를 언제나 가슴에 안으시고, 다박솔언덕에서 다지신 선 군의 신념을 심장깊이 간직하시고 선 군시대 혁명정신인 혁명적군인정신 으로 총잡은 군인들뿐만아니라 전당 과 전체 인민을 힘있게 불러일으키 시였으며 독창적인 선군사상을 필승 의 보검으로 틀어쥐시고 력사에 류 례없는 선군정치를 새로운 높은 단 계에서 펼치신 위대한 장군님

다박솔초소로부터 뻗어간 선군길, 전선길에 솟아있는 높낮은 산발들, 초소들은 그 얼마였던가.

파도사나운 초도의 바다길은 오늘 도 그이의 결사의 신념을 담고 끝없 이 출렁이고 판문점의 안개는 그이 의 조국수호의 의지와 강성조선의 미 래를 담고 뜨겁게 흐르고있으며 오 성산의 험한 산악은 그이께서 마련 하신 선군의 위대한 열매에 대하여 전하며 총대마냥 우뚝 솟아있다. 제 국주의자들의 극악한 반공화국압살 책동으로부터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 고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 우리 장군님께서 헤치신 선 군혁명천만리길을 천만군민은 영원 히 잊지 못할것이다.

다박솔언덕이 세차게 터친 총대바 람은 미제국주의자들과 반동세력을 호되게 후려갈기고 고립압살의 포위 환을 끊어버리였으며 강성국가건설 의 대통로를 열어놓았다. 다박솔초소 에서 불어친 선군열풍은 반세기이상 얼어붙었던 민족분렬의 장벽이 봄날 의 눈석이마냥 녹아내리게 하고 이 행성에 평양바람이 일게 하였다. 력 사에 류례없는 백두령장의 선군장정 을 따라 우리 인민군대가 그 누구도 건드릴수 없는 불패의 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되고 고난의 행군, 강행군이 락원의 행군으로 전환되였으며 강성 국가건설의 새시대가 펼쳐졌으니 우리 장군님께서 그 나날 어찌하여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래일 을 위한 오늘에 살라고 말씀하시였 는지 그 참뜻을 주체 84(1995) 년의 다박솔초소는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뜨겁게 깨우쳐주고있다. 바로 그래서 지도에도 표시되지 않은 나지 막한 봉우리이건만 다박솔언덕은 위대한 백두령장의 선군의 업적을 길 이 전하는 력사의 증견자로, 천만군 민을 강성국가의 광명한 미래에로 부

르는 희망의 언덕으로 찬란한 빛을 뿌리고있 는것이다.

쌍운리의 무적의 땅 크사단에서 시작된 천출명장의 선군혁명 령도는 다박솔언덕을 넘어 새로운 주체 1 0 0 년대 최후승 리의 날을 향하여 오늘도 변함없이

이어지고있다. 쌍운리로부터 다박솔언덕에 이르

기까지! 참으로 이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걸출한 선군혁명령도사를 력사의 진 실로 펼쳐보이는 감동깊은 서사시이 며 백두산선군령장의 슬하에서 무적 의 강군으로 강화발전되여온 우리 혁 명무력의 영광넘친 행로를 소리높이 전하는 또 하나의 자랑스러운 건군 실록인것이다.

천리혜안의 예지와 비상히 풍부한 경험을 지니신 특출한 정치실력가이 시였으며 끝없는 열정과 무비의 담력으로 혁명과 건설을 승리에로 이끄신 희세의 정치원로, 걸출한 선군령장이신 위대한 김정일동지,

자욱자욱마다에 선군의 강렬한 의지와 백두의 혁명정신이 어려있는 그이의 위대한 혁명력사는 진정 절세의 애국자, 걸출한 혁명가, 불세출 의 위인의 거룩한 행로였다.

선군은 조선혁명의 장구한 실천투 쟁에서 검증된 필승불패의 진리이 다. 장군형의 걸출한 령도자께서 선 군정치를 펼쳐가시는 한 조선은 끄 떡없다. 이것은 대를 이어 장군복을 누리는 우리 군대와 인민이 쌍운리 로부터 다박솔언덕을 넘어 오늘에 이 르기까지 당을 따라 선군의 길을 걸으면서 심장깊이 새긴 철리이며 김일성민족,김정일조선의 더없는 행운이다.

력사는 어제를 통해 오늘과 래일 을 비추어주는 거울과도 같다. 사회 주의복이자 위인복,선군복이며 또 한분의 위대한 선군령장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야말로 조국과 혁명의 운명이시고 민족의 존엄이시 라는것이 이 땅에 굽이치는 전인민 적사상감정이다.

쌍운리의 유서깊은 사적땅크부대 에서 성스러운 자욱을 내짚고 잊지 못할 다박솔언덕을 넘어 주체 1 0 0 년대를 장식한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는 또 한분의 걸출한 선군령장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에 의 하여, 대대로 누리는 장군복에 의하 여 새로운 주체 1 0 0 년대의 진군길 에서 앞으로도 영원히 계승될것이며 그 길에서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은 대대손손 승리와 영광만을 맞이할것

본사기자 김 준 혁





펼쳐진 백두령장의 천지조화 전선길에

는것 같았다.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길은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 을 수호하고 후손만대의 번영 을 안아오기 위한 사생결단의 초 강 도 강 행 군 길 이 였 다.

뜻 밖 의 위대한 장군님께서 초도의

섬방어대를 찾으시였을 때의 일이다. 야속하게도 그날 하늘에서는

진눈까비가 쏟아져내리고 먹장 구름이 연기처럼 타래치면서 떠돌고있었다. 주위는 저녁때 처럼 어둑시그레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휘소의 작전탁앞에 서실 때까지만 해도 부대일군들은 너무 어두워서 지 도를 가려볼수 없다는 생각으로 몹시 당황해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러한 일군들을 너그러운 시선으로 바라보시면서 자신께서는 오늘 륙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외진 섬초소에서 수고하고있는 군인 들을 보고싶어 찾아왔다고 하 시며 초도의 주위를 둘러보시

였다. 바로 그무렵이였다. 어둑침

천출명장의 그 거룩한 자욱자욱 에 하늘도 감복하여 그이께서 가시는 전선길마다에 얼마나 감동깊은 천지조화를 펼쳐드리 였던가.

조 명 》 침하던 지휘소에 갑자기 부채 살같은 해살이 비치며 주위가

환해졌다.

무심결에 하늘을 올려다보던 일군들은 두눈이 휘둥그래졌다. 구멍이 뚫린것처럼 환하게 열린 하늘. 그 한쪽 변두리에 얼굴을 내밀고 눈부신 해살을 아낌없이 내리비치는 해. 자취없이 사라져버린 진눈 까비…

언제인가 어느 한 인민군부 대의 주둔지역에 마치 흰 장막 을 두른듯싶게 짙은 안개가 끼 였을 때였다. 높은 곳에 위치하 고있는 전방지휘소는 안개가 더욱 심하여 앞사람조차 제대 로 분간하기 어려웠다. 그런데 좀해서는 걷힐것 같지 않던 안

이 신비스러운 조화는 유독 지휘소를 중심으로 하여 50~ 6 0m가량의 주위에만 미치고 있었다. 마치 하나의 명화폭에 눈부신 백광의 조명이 비쳐지

극적인 세계를 방불케 하는 자연의 그 조화에 일군들은 놀 라움과 신비스러움보다 환희와 격정이 더 컸다.

(아! 섬초소의 군인들이 보고 싶어 찾아왔다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그 우렁우렁하신 음성 이 곧 하늘에 내린 《령》이 되여 밝은 《조명》을 비치게 하였구나. 우리 장군님은 진정 하늘이 낸분이시다!)

이 사라졌다. 모두가 하늘이 부 리는 조화를 두고 이상해하는 데 얼마후 위대한 장군님께서 부대에 도착하시였다.

어버이장군님께서는 너무도 놀랍고도 희한하여 격정에 젖 어있는 부대일군들에게 먼저 사진부터 찍자고 하시며 군인 개가 웬일인지 갑자기 씻은듯 들과 함께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바람도 안개도 검은구름도 없 는 수평선끝까지의 바다풍경은 한폭의 그림을 보듯 선명했다. 그때 아득한 수평선을 바라보시 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부대일 군에게 지금까지 여기 날씨가 어떠하였는가고 물으시였다.

부대일군은 끓어오르는 흥분을 억제 못하며 위대한 장군님께서 부대에 오시기 전 까지만 하여도 안개가 자욱하 여 한치앞도 가려보기 힘들었 는데 지금은 바람도 불지 않고 하늘도 맑게 개였으니 정말 천 지조화가 아닐수 없다고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였다.

어버이장군님께서는 그런 가고 하시며 신비스러운 자연 조화에 감탄을 금치 못하는 그 를 정겹게 바라보시였다.

아마도 위대한 장군님께서 잠시나마 휴식하실수 있게 푸 른 물결 설레이는 아름다운 풍 경을 펼쳐드리고싶어 무심한 바다도 영광의 그 시각에 안개 를 밀어내고 자기의 황홀한 자 태를 드러낸것이리라.

LICH. » 본사기자 정순학

겠는가, 자주적근위 노예가 되겠는가, 자주적근위

병이 되겠는가.

라

누구나 이 말을 생각할 때면 조국이 어려운 시련을 겪던 고 난의 나날 최전방 판문점초소를 찾으시였던 위대한 장군님의 거룩하신 모습부터 우러른다. 우리 혁명의 가장 준엄한 시기 였던 지난 세기 90년대의 시 대어로 천만군민의 가슴마다에 무겁게 자리잡고있는 이 유명한 명제는 오늘도 우리 군대와 인 민에게 선군의 귀중함과 그 진

리성을 깊이 새겨주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군대와 인민이 자주 적인민, 자주적근위병으로 승 리자가 되느냐 아니면 또다시 제국주의식민지노예가 되느 냐 하는 운명의 갈림길에서 단연 선군의 기치를 높이 추켜드시고 주체의 사회주의 를 영예롭게 수호하고 빛나는 승리를 안아오신것은 우리 장군님께서만이 이룩하실수 있는 력사의 기적이였습

언제인가 오랜 기간 군사문제 에 관계한바 있는 어느 한 나라 의 인사가 조선인민군 판문점대 표부를 찾은 일이 있었다. 그때 그는 그곳 군인들에게 당신들이 발휘하는 초인간적인 희생정신 이 어데서 생겨나는것인가고 물 었다고 한다. 우리 군인들은 이 렇게 대답하였다.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위험 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이 판문 점에 오시였다. 그이께서는 우 리에게 노예가 아니라 주인으로 서의 운명을 틀어쥐여야 한다는 사상을 주시였다.그이께서 안겨주신 사상이 우리의 힘이 되고 희생정신을 낳았다. …

그렇다. 력사에 깊이 새겨진 우리 장군님의 주체 8 5(1 9 9 6)년 11월의 판문점시찰은 세상을 깜짝 놀래우고 적들을 기절초풍케 한 시찰, 친어버이 심정으로 그립던 전우들을 품에 안아주신 사랑넘친 시찰만이 아 니였다.

너무도 뜻밖에 판문점초소를 찾으신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는 행복에 겨워 울고웃는 병사 들에게 근엄한 어조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현재 우리 혁명이 겪고있는 시련은 일시적인것이다. 그것을

극복 못하면 노예가 된다. 노예 가 되겠는가, 사회주의를 지켜 야 하겠는가, 문제는 이렇게 선 다. 오늘 인민군대에서 가장 중 요한 구호는 노예가 되겠는가 아니면 자주적인민, 자주적근위 병이 되겠는가 하는것이다. 나는 동무들에게 이것을 강조

본사기자 김성남 찍음

하고 당부한다. … 길지는 않았으나 말씀의 진폭 은 비할바없이 컸다. 노예가 되겠는가, 자주적근위

병이 되겠는가. 위대한 장군님의 이 말씀은 선군시대의 진리로 대번에 초병

들의 심장을 틀어잡았다. 우리 는 반드시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여야 하며 그러자면 총대를 틀어쥐고 사회주의를 끝까지 지 켜야 한다는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의지가 그대로 우리 군대의 사상과 신념으로 되여 이 땅에 는 자주적근위병이라는 고귀한 부름속에 백두산혁명강군건설 의 새 력사가 펼쳐지게 되였다. 그 나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선군길에서 또다시 이렇게 선언하시였다. 력사는 우리에게 노예가 되겠

는가, 자주적근위병이 되겠는가

하는 심각한 물음을 제기하고있 다. 인민군대를 틀어쥐고 준엄 한 혁명의 난국을 과감히 타개 하고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고 살기 좋은 인민의 지상락원으로 만들며 주체혁명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려는것 은 나의 드팀없는 신념이고 의지이다. …

우리 장군님께서 력사가 일찌 기 알지 못하는 이렇듯 위대한 선군신념과 의지를 지니시고 최 전연고지의 수많은 전방지휘소 들에서 멸적의 화살표를 그어주 실 때 그이의 안광에서 빛발친 필승의 기상과 령활한 지략이 그대로 승리가 되여 사회주의 내 조국은 불패의 강국의 높은 지위에 올라서게 되였다.

노예가 되겠는가, 자주적근위 병이 되겠는가.

어버이장군님께서 혁명앞에 제기하신 이 물음은 이 땅에 제 국주의가 남아있는 한 우리 천 만군민의 심장마다에서 순간도 멈춤이 없이 메아리를 울릴것이 다. 력사는 오직 선군의 대답 만을 위대한 진리로 받아들일 것이다.

본사기자 한 영 민

김정일애국주의교양을 심화시켜 오늘의 총공격전을 적극 추동해나가자

무한대한 워 처 기 적 창 조 의

북창지구탄광련합기업소 당위원회

위원회 일군들은 타부들의 심장 속에 어버이장군님의 숭고한 조국관, 인민관, 후대관을 깊이 새겨주며 김정일애국주의교양 을 실천과 결부하여 실속있게 벌려나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김정일애국주의는 우리의 사회주의조국과 우리 인민에 대한 가장 뜨겁고 열렬한 사랑 이며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번 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가장 적극적이고 희생적인 헌신입 LICI. »

온 련합기업소가 석탄생산투 쟁으로 부글부글 끓고있던 지난 7월 중순 어느날이였다.

당위원회 책임비서 김영훈동 무는 남덕탄광의 어느 한 채탄 1 중대의 생산실적이 처지고있 다는 소식을 듣고 서둘러 채탄 공들이 일하는 막장에 들어갔 다. 그때 채탄공들은 막장의 불 리한 조건으로 하여 맥을 놓고

당책임일군의 머리에는 그 전 달 회안탄광을 찾았을 때의 일

탄광은 조건이 다른 단위보다 불리하였지만 정초부터 높은 실

북창지구탄광련합기업소 당 적을 내고있었다. 그 비결의 하 나는 이곳 당조직이 일군들과 탄 부들의 가슴마다에 어버이장군님 의 애국헌신의 한평생을 새겨주 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활발히 벌려온것과 관련되여있었다. 이 굣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나는 오

늘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무엇을 바쳤는가라는 물음에 늘 자신을 비추어보면서 애국의 마음을 가 다듬고있었다. 그 누구를 만나보 아도 그들의 가슴속에는 더 많은 석탄을 캐내여 어버이장군님의 령전에 다진 맹세를 지켜갈 일념

이 꽉 차있었다. 바로 그것이였다.

기적창조의 열쇠는 대중의 심 장에 애국의 불을 다는데 있다. 모든 채탄공들이 한의 석탄을 캐도 어버이장군님께 보고드리 는 심정으로 일하게 하자.

이렇게 결심한 당책임일군은 채탄공들에게 절절한 어조로 이 야기해주었다.

-맵짠 추위로 강산이 꽁꽁 얼어붙었던 정월의 어느날 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또다시 현지지도의 길을 떠나시였다. 시 간은 어느덧 새벽 3시를 가까이 하고있었다.한 일군이 그이께 좀 쉬시옵기를 간절히 아뢰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고맙다고,

일군들의 사업에서 하지만 강행군길이 아닌가고

하시며 우리 인민들이 모두 잘살 게 될 때 오늘을 옛말처럼 추억 하자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 눈물없이 들을수 없는 그 이 야기는 채탄공들의 심장을 달구

어주었다. 그들은 자기들은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어버이장군님께서 위대한 생애 의 마지막시기까지 그토록 마음 쓰시던 석탄문제를 풀기 위하여 한몸이 그대로 동발이 되여 투

쟁하겠다고 불을 토하듯 말하였 다. 채탄공들은 교대가 끝나면 회수동발을 수집하기 위한 전투 에 달라붙었다. 하여 불가능하 다고 하던 7월 석탄생산계획을 전승절을 맞으며 끝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 사실에서 당위원회일군들 은 김정일애국주의교양을 심도 있게 해나갈 때 대고조진군에서 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을 남김없 이 폭발시킬수 있다는것을 깨닫 게 되였다.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한평생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불면 불휴의 로고를 다 바치신 우리 장군님의 숭고한 애국주의를 더 하지도 덜지도 말고 실천활동에 그대로 구현해나가게 하자.

이것이 당위원회가 김정일애국

주의교양에서 내세운 목표였다. 당위원회 선전선동부일군들 은 해설담화자료와 선동자료를 하나 만들어도 사람들의 마음속 에 김정일애국주의를 깊이 심어 주기 위한데 모를 박았다.

눈보라강행군, 삼복철강행군 이야기, 한생을 조국을 떠받드는 뿌리가 되시여 자신의 모든것을 깡그리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로고속에 마련된 과학교육의 전 당들과 문화정서생활거점들,대 동강과수종합농장을 비롯한 기념 비적창조물들에 대한 이야기…

생동한 사실자료들을 가지고

당일군들과 당초급일군들이 입 갱전후시간과 작업의 쉴참에 진 행한 정치사업들과 탄팡기동예 술선동대원들의 경제선동은 온 기업소에 김정일애국주의열풍이 휘몰아치게 하였다.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애국의 마음은 조국 과 인민을 위한 실천투쟁에서 나 타나야 한다고 하면서 교대가 따 로 없는 전투를 벌리였다. 하루 계획을 넘쳐 수행하기 전에는 막 장을 뜨지 않았다. 소대, 중대, 갱들호상간 증산경쟁열풍이 일 어번지는 속에 월계획을 훨씬 앞 당겨 수행하는 굴진소대, 채탄소 대들이 부쩍 늘어났다.

지난 어느날 회안탄광에서는 월계획수행에서 모범인 굴진소 대, 채탄소대원들이 참가한 가 운데 혁신자축하모임이 진행되 였다. 어려운 속에서 계획을 수 행하느라 힘들었겠다고 하는 당 위원회일군들에게 탄부들은 말 하였다.

-교난의 시기부터 생의 마지 막시기까지 단벌솜옷을 입으시 고 강철의 의지와 초인간적인 정력으로 조국수호의 전초선들 을 찾고찾으신 우리 장군님의 선군장정을 생각할 때면 일하고 일해도 성차지 않는다.

이 말을 들으며 이곳 일군들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김정일애국 주의가 피와 넋으로 새겨질 때 진정한 애국의 불을 달수 있다는 것을 다시한번 절감하였다.

당사업은 사람들의 마음속 에 소중히 깃들어있는 애국심 을 키워주고 불러일으키는 사

들끓는 전투현장에서 대중의 가슴속에 김정일애국주의를 깊 이 심어주기 위한 사업을 심화 시켜나갈 때 얼마든지 새 기적, 새 기준을 창조할수 있다. 이것 이 당위원회일군들이 찾은 교훈

본사기자 손 영 희

만경대 남새 전문농장 난판이 있었지만 고생한 보람이 태우는 열렬한 애국자가 되자! 초 급 당 위 원 회 에 서 있다고, 우리가 1년을 고생하면 조국은 10년 발전한다고, 이렇 김정일애국주의교양을 단위의 구체적실정에 맞 게 야영소를 개건해놓으니 얼마나 게 잘 짜고들고있다. 특 좋은가, 이런 멋에 혁명을 한다고 히 현지지도의 길을 끊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내용 임없이 이어가시며 천만 이 초급당비서의 가슴을 쳤다.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

원들과 근로자들이

김정일애국주의를 마음

속에 소중히 간직하고

내 나라, 내 조국의 부

강번영을 위한 투쟁에

떨쳐나서도록 하여야

지난 4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준공을 앞둔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를 돌아보신 소식이 당

그날호 신문의 글줄을

격정속에 읽어내려가던

초급당비서 정완길동무는

불현듯 무릎을 치며 벌떡

일어섰다. 단위사업을 혁신할수

야영소를 개건하면서 애로와

있는 알맹이를 찾아쥔것이다.

한

보에 실렸을 때였다.

합니다. 》

《모든 일군들과 당

フ | 였다.

군민의 심장에 애국헌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혁명활동 의 불을 지펴주시는 소식을 전해들을 때면 의례히 경애하는 원수님의 혁명 활동소식을 통한 교양사 원수님의 말씀에 비추어 단위의 당사업이 잘되고있는가를 새겨 업에 큰 힘을 넣고있다. 보고 사업을 혁신할 방도를 찾 고있는 초급당비서이다. 하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만쓰치지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1년 고생, 1 0년 발전! 이것을 종자로 틀어쥔 초급당비 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으신 뜻 을 당사업실천에 구현해나가기 위 해 곧 농사제 1 작업반으로 향했다. 그때 농장에서는 농산제 1 작

업반마을을 현대적으로 꾸리는 사업을 결의목표에 반영하고 본 격적으로 추진하고있었다. 문화 주택을 많이 지으며 농민들이 좋은 집에서 살도록 하라는것은 어버이수령님께서 농장에 주신 간곡한 유훈이다.

쉴참에 초급당비서는 건설에 참가한 농업근로자들과 자리를 같이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혁명활동 소식을 들려준 초급당비서는 이 렇게 호소했다.

-우리가 고생하는것만큼 조국 이 전진한다. 우리 원수님처럼 조 국과 인민을 위해 한몸 깡그리 불

농업근로자들이 받은 감동은 컸다. 그들은 자리를 차고 일어 났다.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 의 행복을 위해 선군혁명의 천 만리길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대한 애국헌신에 걸 음도 마음도 맞추어가며 심장의 피를 끓이였다. 애국의 한마음안 고 너도나도 떨쳐나 짧은 기간에 새 세기의 요구에 맞는 수십동의

살림집을 훌륭히 꾸려놓았다. 농업근로자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애국헌신의 강행군길 에 발걸음을 맞추도록 하기 위해 초급당위원회는 작업반 놋업과 학기술지식선전실들에 원수님의 혁명활동내용을 보여주는 직관 판을 만들고 그를 통한 교양사 업을 잘하고있다.

초급당일군들뿐이 아니다. 관 리위원장 김영복동무를 비롯한 농장의 모든 일군들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애 국헌신의 발걸음에 전진의 보폭 을 맞추며 농사일과 농장꾸리기 에 애국의 열정을 바쳐가도록 농업근로자들을 이끌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혁명활동 내용을 거울로 삼고 김정일애국 주의를 높이 발양해나가도록 농 업근로자들에 대한 사상교양사 업을 참신하게 벌려나가는 이곳 초급당위원회일군들의 사업은 좋은 결실을 안아오고있다.

본사기자 전경서

대한 이야기꽃을

보 았 는 가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 대상설비종합직장 초급당위원회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보석이 땅속에 불혀있어도 빛을 잃지 않는것처럼 애국의 마음은 그것이 비록 크지 않아 도 귀중한것이며 언제나 아름 다운것입니다. »

청천강계단식발전소 발전설비 안내날개가공을 대형선반만이 아니라 일반선반으로도 할수 있 지 않겠는가 하는 착상을 기대공 김봉혁동무가 하였을 때였다. 많은 사람들이 도리머리를 저

하지만 그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본 초급당비서 리명환동무 는 결코 가볍게 대할 문제가 아

착상하게 된 동기가 가슴뜨거

니라고 생각하였다.

안내날개가공과제는 아름찬 데 대형선반은 한대밖에 없어 온 직장이 안타까와하였다.기 대공 김봉혁동무는 그것을 자기

일처럼 여기며 직장에서도 모자 라 집에 들어가서까지 방도를 진지하게 모색하였다. 그러던중 불현듯 엉뚱하게 착상하게 된것 이였다.

기대공의 그 착상에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그토록 마음쓰시는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에 지 혜와 열정을 아낌없이 바치려는 보석같은 마음이 놓여있었다.

(비록 일부 사람들을 납득시키 지 못하는 착상이라고 해도 그 바 탕에 놓여있는 애국의 그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 마음앞에 사

람들은 머리를 숙일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초급당일군은 그의 착상을 실현시키기 위한 가능성을 파고들었다. 그의 마 음속에 간직된 애국의 소중한 싹을 틔워주기 위한 밀거름이

되여주었다. 종합직장장 김철호동무와 토 의한데 기초하여 필요한 기술협 의회도 여러차례 마련하였다.

거듭되는 협의과정에 일군들 과 기술자, 기능공들은 놀랐다. 일련의 기술적조작을 하면 일반 선반에서도 안내날개를 얼마든 지 가공할수 있다는 답이 나왔

던것이다. 마침내 기능공의 착상은 생산실 천에 받아들여지고 큰 은을 냈다. 일반선반으로 안내날개가공 을 진행한 결과 생산실적이 두

배로 껑충 뛰여올랐으며 직장에 서는 아름찬 과제를 계획했던 날자보다 훨씬 앞당겨 수행하게 되였다. 착상으로 얻어진 경제적실리 도 큰것이였지만 초급당일군에

애국의 마음이 창조의 열매로 주렁진것이 더욱 기뻤다. 그 사실을 통하여 초급당위원 회에서는 직장의 일군들과 당원 들과 종업원들에게 애국의 마음

으로 심장을 불태우면 누구든지

큰일을 해제낄수 있다는것을

게는 기능공의 가슴속에 간직된

실물로 깨우쳐주었다.

사람들속에서는 누가 보건말 건, 알아주건말건 사회와 집 단, 일터를 위한 좋은 일을 찾 아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강화 되였다.

직장장 김석동무를 비롯한 대 형기계직장의 일군들과 기술 자, 로동자들은 새로운 지구들 을 창안하여 타빈가공에서 놀라 운 기적을 창조하였다. 8m타닝 반 기대공 림철영동무는 한달사 이에 6개의 고정날개를 가공하 는 위훈을 세웠다.

흔히 일군들은 어떤 창안이나 기술혁신의 실머리로 되는 기발 한 착상을 하는 사람을 보면 그 의 재능에 대하여 먼저 평가하군 한다. 그러나 그 착상에 깃든 애 국의 마음을 먼저 보고 대중의 애국심을 분출시키는 사업을 참 신하게 벌려나가는 이곳 초급당 일군들의 사업은 본받을만 하다.

본사기자

대학 기숙사현관 에 들어서면 하나 의 직판물이 인상

조옥희해주교원

깊게 안겨든다. 이 대학 졸업생들이 자원진 출한 서해 외진 섬들의 분포 정형을 알수 있게 하는 직판

물이다. 졸업생들의 긍정적인 소행을 통하여 대학생들에게 애국의 꿈 을 키워주기 위하여 기울인 이 곳 초급당위원회일군들의 창조 적인 사색이 여기에 비껴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애국주의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애국은 자기 집뜰안에서부러 시작

됩니다.》 지난해, 최전연섬마을의 어느 한 분교에 진출한 리봉희동무와 대학생들사이에 뜻깊은 상봉모임 이 있은 날이였다.

모교를 떠나기에 앞서 그는 웬 일인지 대학기숙사에 좀 들 🗄 려보겠다고 하였다.

동무들과 함께 생활하던 정든

조옥희해주교원대학 초급당위원회 사업에서 추억이 어린 기숙사의 호실에

들어서서 벽과 창문, 비품 등 내 부의 모든것을 보고 또 보는 그 의 눈빛은 뜨거웠다. 《섬분교생활의 나날에 한시

도 잊을수 없었던 기숙사생활입 니다.》 그 사실을 통해 초급당일군 은 서해의 외진 섬분교들에 자

원진출한 졸업생들의 장한 소 행에 얼마나 소중한 체험과 정 서가 놓여있는가를 깨닫게 되 대학시절에 기숙사생활을 해

본 초급당일군은 대학생들의 구 체적인 생활에 발을 붙이고 김정일애국주의교양을 심화시 켜나갈 궁리를 하였다.

(자기 집뜰안과 같은 기숙사 간직되게 하자.)

초급당비서 김창두동무의 생 각은 학장 윤옥란, 교무부학장 교로 자원진출해간 졸업생들에

장명철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의 지지를 받았다. 그렇게 되여 기숙사현판의

한 벽면에는 이 대학 졸업생들 이 자원진출하여 후대교육사업 을 진행하는 서해의 외진 섬들 을 한눈에 알아볼수 있게 하는 특색있는 직판물이 게시되게 되였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섬분교에 자원진출한 졸업생들이 위대한 장군님과 경애하는 원수님께 기쁨을 드린 내용들도 직판물에 담았다. 그리고 이런 물음을 두

드러지게 새기였다. 《섬분교로 진출할 다음차례 의 졸업생은?》

그 직관물은 수백명 기숙사생 들의 생활의 한 부분으로 되였 에서 애국의 꿈이 더욱 소중히 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숙사 현관을 드나들면서 대학생들은 그 직판물을 눈에 익히고 섬분 자주 피웠다. 경 애 하 는 원수님께서 최대

열점지역에 위치 한 서해안의 섬방어대들을 찾으 신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그 직 판물앞에서 흥분과 격정을 달래 지 못하였다.

대학생들은 그 직판물에 소중 한 애국의 꿈을 실었다. 졸업생들 처럼 외진 섬분교들에 달려나가 조국의 미래를 키우는 밑거름이 될 결의들을 다지였다. 모교와 섬 분교들은 멀리 떨어져있어도 이

렇게 마음속에 하나로 이어졌다. 올해에도 대학에서는 박미 경, 현성애, 김은혜동무를 비롯 한 졸업생들이 서해의 외진 섬 분교들에 자원진출하는 긍정적

인 소행이 발휘되였다. 꿈을 실어준 기숙사의 직판물 은 이곳 초급당위원회일군들이 대학생들속에서 애국의 일념을 북돋아주는 사업을 구체적인 실 정에 맞게 얼마나 참신하게 하는 가를 생동하게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채 인 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굽이굽이에 비껴흐르는 위대한

탁월한 선군혁명령도로 조국

과 혁명,시대와 력사앞에 LICH.»

이 솟아 그 이름 빛나는 철령

선군혁명경도의 상징으로 솟아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시였습 은 뜨겁다.

4 0리나 되는 험준한 령길, 그 금 가슴뜨겁게 되새겨진다. 자주적근위병이 되느냐 아니 의 거룩한 자욱을 남기시던 이으신 우리 장군님이시였다.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새겨 면 노예가 되느냐 하는 력사의 어버이장군님의 근엄하신 모습 최고사령판이나 장병들이나 넘고넘으시며 최전방초소들을 조와 비약의 제일가는 원천이 보는 이 나라 천만군민의 가슴 갈림길에서 선군의 기치를 더 높이 드신 위대한 장군님, 주체 8 5 (1 9 9 6)년 력사의 그날 장군님께서는 3월, 조국이 류례없이 엄혹한 최고사령관이 전선길을 알자면

운 령길을 넘으시며 조국수호 _ 철령으로 선군혁명령도의 길을 (2001)년 7월…

을 천만년세월이 흘러도 잊을 수 없다. 어느해 태양절에는 우리 수령님께서 아끼고 사랑하시던 선군혁명령도의 상징으로 높 시련을 겪고있던 시기 조국 직접 차를 몰아보아야 한다고 병사들생각이 더욱 간절해진 과 인민의 운명을 한몸에 하시면서 친히 운전대를 잡으 다고,군인들이 명절을 어떻게

오르면서 4 0리,내리면서 위대한 장군님의 모습이 다시 늦게 내린 진눈까비로 미끄러 놓일것 같다고 하시며 또다시 철령을 넘으신 주체 9 0 주신 우리의 사회주의이다.

다 혁명의 한길에 나선 혁명 전우들이라고 하신 그날의 우리 장군님의 가르치심은 얼마나 천만의 가슴을 울려주고있는것

무더운 여름철도 마다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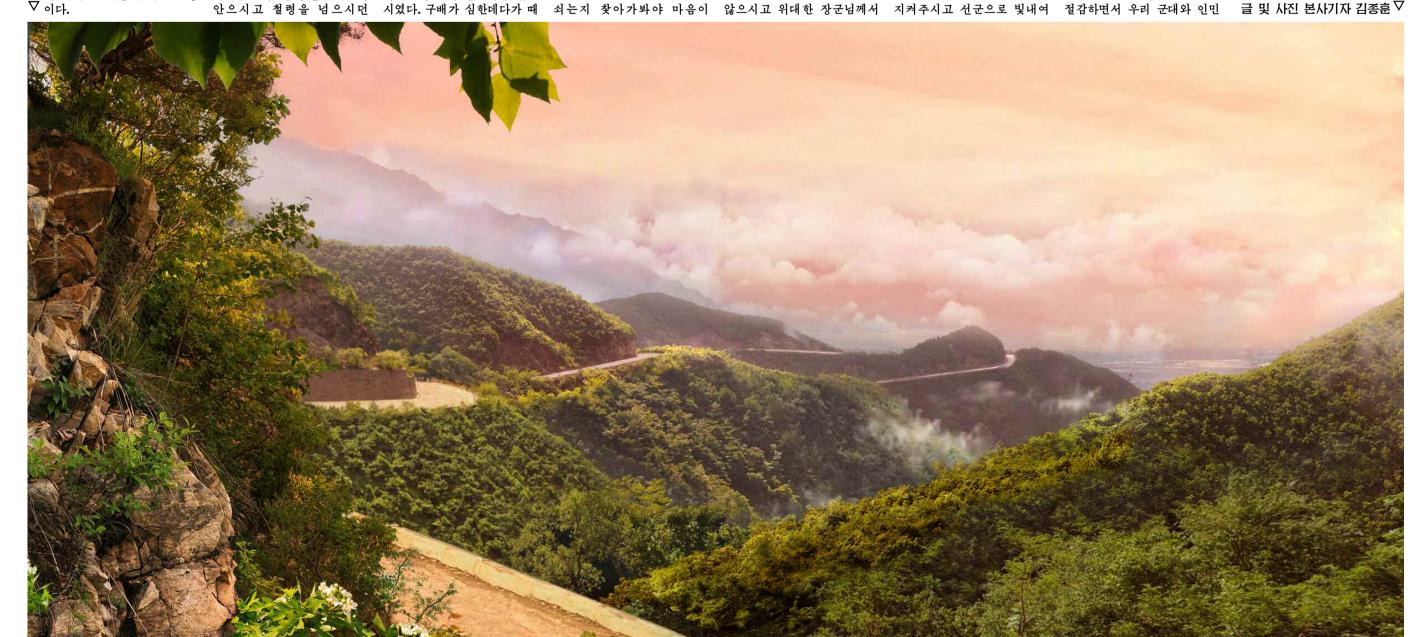
실로 굽이굽이 철령을 바라보며 총대의 귀중함을, 창 찾으시고 혁명의 붉은기와 사회주의를 지켜내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천만군민은 영원히 잊을수

위대한 장군님께서 총대로 갈수록 커지는 행복을 페부로 내달리고있다.

선군혁명령도의 상징인 철령을

어디에 있는가를 더욱더 뼈저 리게 절감한 우리 인민군장병 들과 인민들이다. 그윽한 향기를 느끼면서, 날이 전진의 보폭을 맞추며 폭풍쳐

은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 혁명령도의 길을 그대로 이어 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 어갈 신념과 의지로 심장을 불태우고있다.천만군민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선군길, 철령아래 펼쳐진 사과바다의 강행군길에 심장의 박동과



세차게 라오르는 조선속도창조의 북변에서 조국의

현대적인

조국의 북변에 위치한 3월5 일청년광산에서 조선속도창조 의 장엄한 포성이 또다시 높이 울리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광산에

주신 유훈을 빛나게 판철하여 이곳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 이 새로 일떠세운 몰리브덴공장이 자기의 조업을 선포한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 에 대고조전투장마다에서 조선속 도창조의 불길이 세차게 나래치고 있는 시기에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기여할 첨단수준 의 유색금속생산기지를 조업한것 은 참으로 자랑할만 한 일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경제강국건 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뿌려놓으신 귀중한 씨앗들을

잘 가꾸어 빛나는 현실로

꽃피워나가야 합니다.» 생산능력에 있어서나 현대화 수준에 있어서나 당당히 첨단을 자랑하는 생산공정들의 련이은 조업과 더불어 북변의 이 백만 점짜리 광산은 어제날의 광물생 사기지로부터 현대적인 유색금 속생산기지로의 뚜렷한 전변의

-주체 9 9 (2 0 1 0)년 5월 능력확장된 선광장 조업,주체 101(2012)년 10월 현대 적인 제련소 조업, 주체 1 0 3 (2014)년 8월 몰리브덴공장 조업.

큰걸음을 내짚고있다.

바로 여기에 위대한 당의 령도밑에 어버이장군님의 유훈 판철투쟁속에서 최근년간 호하 땅에서 런이어 일어난 다계단변 유훈관철의

그 하나하나가 큰 공장건설과 맞먹는 방대한 공사였다. 그러나 광산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매 해 맡겨진 생산계획을 넘쳐 수행 하면서 전문건설단위의 도움이 없이 자체의 힘으로 모든 대상들

의 건축공사와 설비조립, 시운전

오늘도 광산의 일군들과 로동

까지 성과적으로 진행하였다.

계급은 어버이장군님께서 주체 97(2008)년 1월 눈보라 날리는 북방의 추위를 뚫고 자 기들의 일터를 찾아주신 날을 마음속에 소중히 안고있다. 영광의 그날 우리 장군님께서는 광산을 추켜세워 생산능력을 고 난의 행군시기의 수배로 늘인 일군들과 로동계급의 수고를 높이 평가하시면서 어버이수령님의 유훈대로 선광능력을 대담하게 끌어올릴데 대한 강령적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어버이장군님의 현지말씀을 하루빨리 관철하고 승리의 보고 를 올리자!

누구나 이런 충정의 각오를 안고 선광능력을 2.5배로 확장하기 위한 결사전에 떨쳐나섰다.

지난 시기 호수자리인것으로 하여 퍼내고퍼내여도 끝이 없이 밀려내리는 감탕속에 선광장의 콩크리트기둥 하나를 박기 위해 백수십m³의 감탕을 퍼내야 하였 다. 공사의 전기간 돌격대원들 은 물론 광산의 가두녀성들도 자기가 하루에 몇시간 자고 몇 시간 일하는지 가늠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들의 마음속에 끓어

환경보호측면에서나 어느 모로 북방의 험한 령을 넘어 자기들 우월한 제련법을 무조건 성공시 을 찾아주신 어버이장군님에 대한 킬 그들의 민족자존의 정신력앞 한없는 고마움이였고 장군님께 에서 불가능이란 없었다.

5

더 큰 기쁨을 드릴 불타는 소원

뿐이였다. 자기들의 모든것을

다 바쳐서라도 오직 완공의 그

날을 앞당기면 그만이라는 충정

을 안고 그들은 5년은 걸려야

한다던 방대한 건축 및 설비설

치공사를 불과 2년동안에 해제

끼는 결사관철의 기적을 광산의

주체 9 9 (2 0 1 0)년 9월

외국방문의 길에서 쌓인 피로도

푸실 사이없이 북방의 험한

령을 또다시 넘으시여 광산을

찾아주신 어버이장군님, 당과

수령을 말로써가 아니라

오직 자랑찬 실적으로 받들어갈

일군들과 로동계급의 불타는 마

음은 현대적인 유색금속생산기

지를 일떠세울데 대하여 주신

어버이장군님의 이날의 유훈을

끝까지 관철하기 위한 투쟁의

-새 세기의 요구에 맞는 첨단

광산의 책임일군들은 아직 우

리 나라 제련공업분야에서 실현

하지 못한 높은 목표를 내걸었

다. 그들이 내세운 첨단의 목표

를 놓고 불가능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하지만

어버이장군님의 현지말씀을

최상의 수준에서 관철할 충정의

일념안고 일군들은 첨단의 그 길

을 앞장서 헤쳐나갔다. 현대화

면에서나 경제적실리면에서나

나날에 더욱 높이 발휘되였다.

수준의 능력이 큰 제련소를!

연혁사에 아로새기였다.

나날에

우리의 기술, 우리의 힘으로 첨단수준의 제련소를 일떠세우 겠다고 열렬히 토로하는 광산책 임일군의 진정에 김책공업종합 대학 금속공학부의 교원,연구 사들이 적극 호응해나섰다. 서 로의 창조적지혜와 열정이 합쳐 지는 속에 우리의 실정에 맞는

성되였다. 이런 충분한 기술적 준비밑에 광산에서는 2011년 여름부터 본격적인 제련소건설 공사에 달라붙었다.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는 그들의 결사관철의 정신력은 어버이장군님께서 서거하시였 다는 청천벽력같은 비보에 접한 후 더욱 세차게 분출되였다. 피눈 물의 언덕에서 어버이장군님께 못다한 충정까지 다 합쳐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받들어 갈 심장의 맹세로 가슴 불태우 며 광산의 일군들과 기술자, 로 동자들은 장군님의 유훈판철투 쟁에 총궐기해나섰다. 그리하여 방대한 제련소건설을 1년 남짓 한 기간에 끝내고 첨단의 초행

유색금속생산기지로

산

어버이장군님의 유훈을 끝까 지 철저히 관철하자, 이런 충정 의 각오를 안고 광산의 일군들

길을 성과적으로 돌파하는 기적을

안아오고야말았다.

또다시 몰리브덴굥장건설에 달라붙었다.

말로써가 아니라 오직 자랑찬 실적으로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를 앞장에서 받들어갈 드높 은 각오안고 그들은 불과 5개 월동안에 방대한 건축공사와 설 비조립, 시운전을 성과적으로 결속하는 놀라운 기적을 또다시 창조하였다.

1 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지

만 이곳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어버이장군님의 유훈관철투쟁 속에서 2년을 주기로 나라의 귀중한 재부, 로동당시대의 창 조물을 련이어 일떠세우고 우렁 찬 동음을 터치여 조국강산을 선군시대의 맛이 나게 훌륭히 변모시키였다. 당과 수령에 대한 불타는 충정으로 심장의 피를 끓일 때 그 어느 부문에서나 세기를 주름잡는 기적을 창조할 수 있다는것을 호하땅의 전변은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글 본사기자 리병춘 사진 본사기자 한 광명



얼마전 광산의 몰리 브덴 공장 조업식에 참가 하였던 우리는 현지에서 김책 공업종합대학 금속공학부 학부장

LICI.»

김철호동무를 만날수 있었다.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과학기술은 강성국가건

설을 추동하는 원동력이며

과학기술발전에 인민의 행복

과 조국의 미래가 달려있습

3년전 대학에 찾아온 렴인윤

김책공업종합대학 금속공학부의 교원. 연구사들

지배인의 절절한 토로는 이 품 종의 유색금속생산에서 선진적 인 방법을 도입하기 위해 모대 기고있던 학부안의 교원,연구 사들을 하나같이 흥분시켰다.

-첨단의 돌파구를 우리가 열 어제끼자! 김영일동무를 비롯한 유색야

금강좌의 교원,연구사들은 세 계적인 추세와 문헌들에 대한

폭넓은 조사를 진행하였다.여 러차례 광산을 오가며 현지일군 들과의 충분한 토의를 거쳐 우 리의 실정에 맞게 첨단기술을 도입하는데서 제기되는 문제들도 하나하나 확정해나갔다.

짧은 기간에 기술준비가 성과 적으로 완료되였고 그에 따라 제련소건설이 본격화되였다. 이 분야에 대한 깊은 파악을

가진 김영일동무가 1 년세월 광산로동계급 과 침식을 같이하며 제 기되는 과학기술적문 제들을 풀어나갔다.

그 나날 그는 우리의 실정에 맞게 배소로계 통에 페열보이라를 새 로 설치하고 판로망공 사를 합리적으로 하는 등 높은 과학적실력과 창조적실천으로 한공 정한공정 기술지도를 심화시켜나갔다.

과학기술적으로 안 받침된 그의 론리정연 한 주장앞에서 다른 나라의 기술자들도 자 기들의 기술적주장을 철회하고 조선의 과학

자 . 기 술 자 들 의 실력에 찬사 를 금치 못해 하였다.

주체 조선의

과학자라는 높은 민족적자존심 을 안고 그 누구도 걸어보지 못 한 첨단의 초행길을 주저없이 보무당당히 걸어온 학부의 교 원, 연구사들의 집체적지혜와 창조적열정은 드디여 단번성공 이라는 장쾌한 승리에로 이어 졌다.

현대적인 제련소의 조업과 더 불어 승리의 신심을 배가한 학 부의 교원, 연구사들은 곧장 몰 리브덴공장건설의 기술준비에 달라붙었다. 금속공정자동화강 좌의 강좌장 장국환, 교원들인 함경혁, 변수봉동무들이 현지에 내려와 회전로를 리용한 배소공 정을 확립하고 종합적인 조종체 계까지 완성하여 전반적인 생산 공정을 현대화, 과학화의 수준에 올려세우는데 또다시 큰 기여를

하였다. … 비록 짧은 시간이였지만 학부 장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생각했다.당과 수령의 품속에 서 자란 이런 최첨단돌파전의 《홍길동》들이 있어 대고조전 투장들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첨 단을 돌파하는 자랑찬 승전고가 울리고있는것이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방 분 기 새로 조업한 볼리브덴공장을 돌아보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 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 분에서 혁신의 불바람을 세차 게 일으켜야 합니다.》

공장정문에서 우리와 만난 광 산 부기사장동무가 수자를 들어 가며 남들은 2년이 걸려야 한다 던 대상건축공사를 5개월만에 끝낸데 대하여 이야기해주었다.

2년과 5개월,하나의 공장 건설을 이렇듯 짧은 기간에 해 제끼고 시운전에 이어 조업까지 성과적으로 보장하였다니 그야 말로 조선속도창조투쟁에 한사 람같이 떨쳐나선 광산일군들과 로동계급의 비약의 기상에 감탄 을 금할수 없었다.

우리는 먼저 생산의 첫 공정인 배소공정에 들어섰다. 회전로와 열풍로가 기본으로 되여 정광속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이 배소공정은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첨단공정이였다. 회전로의 온도수 감과 그 조종을 콤퓨터에 의하여 실시간으로 감시처리하여 배소공 정의 모든 기술지표를 보장한다고

일군은 긍지에 넘쳐 말하였다. 첨단수준의 공장을 조업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기대공들의 기능수준이 높은것 같다는 우리 의 말에 일군은 흔연히 웃으며

종합조종실로 안내하였다.

중요생산공정들을 실시간 감 시처리하는 그곳에서 우리는 김 책공업종합대학 금속공학부의 교원, 연구사들을 만날수 있었 다. 알고보니 첨단을 돌파해나 가는 과학연구사업의 짬시간을 리용하여 기능공들에 대한 기술 학습을 지도해준 주인공들이 다 름아닌 그들이였다.

과학기술로 몰리브덴공장 건설에 기여하고 당중앙위원회 감사문까지 받아안은 영광을 축하해주는 우리에게 그들은 첨단 돌파의 길에서 해야 할 일이 아직 많다고 하며 앞으로의 전망에

대하여서도 말해주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한돌 기한돌기 쌓이는 순도높은 제품 마대들을 창문너머로 바라보느 라니 우리의 눈앞에는 그것이 광 산의 더욱 휘황찬란할 앞날을 담 보하는 비약의 큰 밑천으로 새 삼스럽게 안겨왔다.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기여할 새로운 창조물들을 끊임없이 일떠세우 며 조국의 북변땅에서 사회주의 만세소리 더 높이 울려갈 광산

의 래일이 어려오는듯싶었다. 글 및 사진 특파기자 동세 웅

> 위한 력사적문건에 생애의 마지막친필존함을 남기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위업을 이룩하기

애국애족의 숭고한 뜻을 길이 전하는 친필비와 정전담판회의장, 정전협정

그들은 또한 고려박물판을 참판하

였다.



전국농근맹일군들과 초급선전일군들

혁 명 전 적 지 들 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선군혁명령도를 시작하신 54돐을 맞으며 전국농근맹일군들과 초급선전 일군들이 8일부터 16일까지 백두산 지구 혁명전적지답사를 진행하였다.

답사자들은 보천보전투승리기념탑

과 보천보혁명전적지, 청봉숙영지, 삼지연못가, 무산지구전투승리 기념탑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과 백두산3대장군 의 영상을 모신 백두산밀영의 모자이크벽화에 꽃바구니와 꽃다발 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백두의 혁명정신을 조선혁명의

넋으로,생명으로 간직하고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계승완성해나갈 불타는 결의를 안고 답사길에 오른 그들은 먼저 보천보전투가 진행된 력사의 땅에 들어섰다.

보천보전투지휘처, 우편국, 면사무 소,경찰판주재소 등을 돌아보면서 답사자들은 보천보의 밤하늘에 승리 의 총성을 울리시여 인민들에게 조국해방의 서광을 안겨주신 항일의 전설적영웅의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령군술에 감탄을 금치 못하였다.

보서리샘물터와 중흥등판을 거쳐 리명수혁명사적지, 청봉숙영지, 건창 숙영지를 찾은 그들은 조국해방성전 에 청춘도 생명도 다 바친 항일혁명 선렬들의 고귀한 넋을 새겨안았다. 답사자들은 백두판, 천지원, 베개 봉국수집을 비롯하여 천지개벽한 삼 지연 읍지구를 참관하였다.

무산지구전투승리기념탑을 찾은 그들은 위대한 대원수님의 숭고한 영상에서 새 힘과 용기를 가다듬으며 원쑤들의 머리우에 불벼락을 들씌웠던 력사의 전구를 깊은 감동속에 돌아 보았다.

무포낚시터, 간백산밀영 등을 돌이 본데 이어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 오른 그들은 천지의 장쾌한 전경과 아득히 펼쳐진 백두밀림을 바라보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

혁명의 성지 백두산밀영을 방문 하고 답사자들은 백두산밀영고향집 앞에서 맹세모임을 가지였다.

그들은 항일혁명선렬들의 투철한 수령결사옹위정신을 따라배워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정치사상 적으로, 목숨으로 견결히 옹위하며 사상교양사업을 개선강화하여 농업 근로자들을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튼튼 히 무장시키고 알곡증산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기 위한 사업을 참신하게 벌려나갈 결의를 표명하였다.

모임이 끝난 다음 답사자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백두광명성으로 탄생하시여 항일대전의 총포성을 들으시며 성장하신데 대한 해설을 들 으면서 백두산밀영고향집에 소중히 보존되여있는 사적물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답사기간 그들은 항일유격대식선 전선동경연, 문답식학습경연 등 다채 로운 정치문화사업을 하였다.

【개성 8월 16일발 조선 중앙통신】《조선반도의 평화 와 통일을 지지하는 〈백두-한나〉자동차행진》에 참가

하고있는 국제고려인통일련합회 제1부위원장인 김칠성 로씨야고려인 통일런합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로씨야-조선반도종단자동차행진단이 16일 개성을 통과하였다.

개성시의 연도에서 각계층 군중이 꽃다발과 공화국기, 통일기를 흔들고 《조국통일!》 구호를 웨치면서 뜨거 운 동포애의 정으로 행진단을 환송 하였다.

자동차행진단 환송행사가 진행되 였다.

김성근 개성시인민위원회 사무장, 리성건 해외동포사업국 부국장, 관계 부문 일군들, 로씨야-조선반도종단 자동차행진단 성원들이 여기에 참가 하였다.

행사에서는 발언들이 있었다. 연설자들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 에 이바지하려는 절절한 념원을 안고 공화국의 여러 지역을 통과하면서 우리 민족의 통일의지를 내외에 과시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로 씨 야 – 조 선 반도 종 단 자 동 차 행 진 단

헤아려 이번 행진이 성과적으로 진행되도록 깊은 관심을 돌려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하였다.

애 하 는 경 김정은원수님께서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을 위한 현실적인 방도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신데 대하여 그 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앞으로 도 민족의 화해와 단합, 조국의 통일 을 위해 모든것을 다할것이라고 강조

이어 행진단은 민족의 단합된 힘 으로 통일의 넓은 길을 열어나갈

하였다.

그들은 재로씨야동포들의 마음을 겨레의 의지를 안고 군사분계선을 넘어섰다. 이에 앞서 행진단성원들은 판문점을 참관하였다.

그들은 민족분렬의 비극을 가시고

조인장, 판문각을 돌아보았다.

앙 골 라 의 사 협 회 대 표 단 만경대 방문, 여러곳 참관



까를로스 알베르뚜 삔뚜 데 쏘우사위원장 을 단장으로 하는 앙골

라의사협회대표단이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손님들은 조국의 해방 과 인민의 행복,인류 자주위업실현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 의 혁명생애에 대한 해설 을 들으면서 고향집의 사적물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그들은 만경대옛집방문을 기념

하여 사진을 찍은 다음

만경봉의 혁명사적들을

단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만경대고향집을 방문 하고 깊은 감동을 받 았다.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일본 제국주의를 쳐부시고 조선의 해방을 이룩하시 였다. 조국에 돌아가서 그이의 위대성을 널리

선전하겠다. 대표단은 또한 평양 산원 유선종양연구소, 옥류아동병원, 류경구강 병원 등을 참관하였다.

행 될 다 음 주 에 진 불컵 경 죽 리명수:평

다음주에 진행될 홰불컵축구 경기일정은 다음과 같다. 18일 압록강:룡악산

홰 불:월미도 판모봉:4.25 봉화산:장수봉 묘향산:소백수

심영학부위원장을 단장으로

압록강:관모봉 22일 월미도: 4.25 경공업성:관모봉 화 불:압록강

경공업성:룡악산

화 불:4.25

남 아 프 리 카 에 갔 던

조 선 건 축 가 동 맹 대 표 단 귀 국 남아프리카의 더반에서 하는 조선건축가동맹대표단 진행된 국제건축가동맹 이 16일 비행기로 귀국하 제26차총회에 참가하였던 였다.

【조선중앙통신】 저의 집을 나섰습니다.

*독자의 펭지*를 친형제의 정 그대로였습니다 제가 김성국, 한동환동지를 비롯한

덕천시인민보안서 교통지휘대 인민보안 원동지들을 알게 된것은 지금으로부터 1 0 여년전 어느해 겨울날이였습니다. 문득 문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우리 집 방문을 열고 낯모를 사람들이 들어섰 습니다.

자기 소개부터 하고난 그들은 이곳에 특류영예군인이 살고있다는것을 오늘에 야 알게 되였다고,늦게 찾아와 정말 미 안하다고 거듭 이야기하는것이였습니다. 그날 저의 가정생활에서 불편한 점이 없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본 그들은 이제 부터는 특류영예군인인 저를 친형제 처럼 여기고 자주 찾아오겠다고 하면서

10여년세월 근무수행으로 바쁜 속에 서도 저의 집을 찾아와 온갖 지성을 다 하는 보안원동지들을 보며 우리 집식구 들은 물론 동네사람들모두가 인민의 보 안원들이 정말 다르다고 감탄과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한 평범한 특류영예군인을 위한 그들 의 뜨거운 지성은 정말 친형제의 정 그

대로였습니다. 저는 이런 훌륭한 인민의 보안원들을 키워준 고마운 우리 당에 감사의 큰절을 드리면서 마음의 군복을 영원히 벗지 않고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일에 저의 적은 힘이나마 이바지하겠다는것을 굳게

결의합니다. 덕천시 은덕동 1 1 인민반 정 광 범

업 적 전 하는 숭고한 화폭들 군 령 장 의

뜻깊은 선군절이 하루하루 다 가올수록 이 땅의 천만군민은 선군의 기치를 높이 추켜드심으 로써 사회주의조국을 굳건히 수 호하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적발 전을 위한 만능의 보검을 마련 해주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더욱 가슴뜨겁게 되새기고있다.

백두산절세위인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전하는 영상미술 작품들을 통하여서도 우리 군대 와 인민은 어버이장군님께서 탁월한 령도로 열어나가신 선군 의 길이야말로 주체혁명위업의 영원한 승리의 길이라는 절대불 변의 신념을 더욱 굳게 가다듬 고있다.

령 도 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혁명의 실천적경험 은 군사를 앞세우고 혁명부력 을 주력으로 하는 선군정치야 말로 그 어떤 강적도 불리치 고 그 어떤 난관과 시련도 이 겨내며 혁명위업의 승리적전 진을 확고히 보장할수 있는 우리 시대, 우리 혁명의 가장 위력한 정치방식이라는것을 증명하였습니다. 》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 령도사는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 는 철저한 반제자주, 끝없는 애국헌신의 력사이며 인민군장 병들과 인민들에 대한 절대적믿 음과 친어버이사랑으로 수놓아 진 숭고한 사랑의 력사이다.

불세출의 선군령장의 현명한 령도가 있었기에 우리 혁명은 력사의 온갖 풍파를 뚫고 승리 만을 펼쳐올수 있었으며 장군님 의 애국헌신의 초강도강행군길 이 있어 우리 군대와 인민은 인 류가 알지 못하는 력사의 기적

을 창조할수 있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 령도의 빛나는 자욱자욱이 새겨 지던 나날에 선군정치의 정당성 을 확신한 우리 군대와 인민은 선군령장의 불멸의 업적을 전하 는 숭고한 화폭들이 창작되여 후세에도 길이 전해지기를 념원

이 반영된 숭고한 화폭들은 미 술부문의 창작가들에 의하여 지 난 시기에 수많이 창작되여 국 보적인 가치를 가지는 훌륭한 작품으로 여러 계기때마다 전시 되였으며 오늘도 뜻깊은 선군절 과 더불어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을 더해주고

전체 군대와 인민의 그 념원

조 선 화 《선 군 혁 명 령도의 위대한 계승》은 어버이장군님께서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조선인민군 근 위 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 단을 찾으셨던 력사적사실을 훌 륭히 형상한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체4 9 (1960)년 8월 25일 조선 인민군 근위 서울류경수제 1 0 5 땅크사단에 령도의 자욱을 새기신것은 선군혁명위업의

위대한 계승을 선언한 력사적사 변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선군혁 명령도를 시작하신 그날로부터 반세기가 넘는 장구한 기간 인 민군부대들에 대한 끊임없는 현 지시찰의 길을 이어가시면서 인 민군대를 불패의 혁명무력으로 강화하고 선군의 위력으로 혁명 과 건설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 오시였다.

뜻깊은 력사의 그날을 감회깊 이 돌이켜보게 하는 화폭은 군 사를 중시하고 군건설에 선차적 힘을 넣어 인민군대를 당파 수령의 군대로, 그 어떤 강적도 타승할수 있는 불패의 혁명무력 으로 강화발전시키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위대성을 다시 금 절감하게 한다.

인민군대의 강화발전을 위하 여 위대한 장군님께서 인민군부 대들에 대한 현지시찰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신 력사적인 사 실을 반영한 화폭들도 우리 군 대와 인민의 류다른 감회를 불 러일으킨다.

아크릴화 《초도의 병사들이 우리를 기다리고있소》 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풍랑사나운 바다길 을 헤치시며 초도의 병사들을 찾아가시였던 력사적인 사실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병사들을 제일로 사랑하시는 어버이장군님께서 초도의 병사 들을 찾으실 때 너무도 풍랑이 사나와 촬영가들마저 그 력사적 화폭을 남기지 못했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손

님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그때의 일도 다 즐거운 추억으

린 일터에서 일하는 멋이 제일

잠시후 우리는 새로 꾸렸다는

실내물놀이장으로 발걸음을 옮

겼다. 어른들과 아이들이 따로

따로 리용할수 있게 꾸려진 실

내물놀이장에서는 사람들의 웃

음소리가 그칠줄 몰랐다. 구명

대를 끼고 물장구를 치는 아이

들, 수영복차림으로 사진을 찍

는 처녀들, 수영경기를 하는 청

년들, 물놀이에 시간가는줄 모

르는 손자, 손녀들을 흐뭇하게

이곳 물놀이장 관리원 주영삼

《안주지구탄광련합기업소의

동무의 말에 의하면 가족단위로

여기를 찾는 사람들도 많다고

책임일군들이 자주 여기에 나와

서 물깊이도 가늠해보고 필요한

자재들도 해결해주어 공사를 빨

리 끝내고 봉사를 시작할수 있

마치 해수욕장에 온듯 한 기

분이라고 하면서 물속에서 즐겁

게 휴식의 한때를 보내는 안주

의 탄부들과 가족들, 청남구의

주민들을 보면서 우리는 인민의

웃음이 더욱 커가는데서 긍지와

보람을 찾는 이런 미더운 복무

자들이 있어 앞으로도 은덕원이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바라보는 로인들…

었습니다.》

로 되었습니다. 제 땀을 바쳐

입니다.》

그 잊지 못할 력사의 시각을 반영하고있는 작품에 훌륭히 형 상되여있는바와 같이 동행하던 일군들이 오늘만은 안된다고 절 절히 만류했건만 우리가 언제 순풍에 돛을 달고다녔는가고, 초도에는 나의 병사들이 있다고 하시며 배전에 거연히 서시여 사나운 파도를 헤쳐가시는 우리 장군님의 영상에는 천출명장의 담력과 배짱, 그리운 병사들에 대한 친어버이의 뜨거운 정이 그대로 어려있다.

아크릴화 《선군정치를 만능 의 보검으로 틀어쥐시고》는 혁 명의 총대를 높이 추켜드시고 력사의 생눈길을 헤쳐나가시는 선군령장의 위인적풍모를 형상 한 작품이다.

진정 백두의 슬기와 기상을 지니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선군정치를 만능의 보검으로 틀 어쥐시고 그처럼 어려웠던 고난 의 행군, 강행군시기 제국주의 련합세력의 고립압살책동을 짓 부시고 어버이수령님께서 물려 주신 내 나라, 내 조국을 그 어 뗜 원쑤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불패의 정치군사강국으로 전변 시키시여 김일성민족의 존엄과 국력을 만방에 떨치시였다.

유화 《최전연초병들을 찾으 시여》는 어버이장군님께서 생애의 마지막시기에 인민군부 대를 현지시찰하신 력사적사실 을 형상한 작품이다.

최전연의 병사들앞에서 환히 웃으시는 어버이장군님의 영상 을 우러를수록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지켜 선군의 길에서 한생을 불태워오신 그이의 헌신 과 로고의 세계가 어려오고 그 누가 내 마음 몰라줘도 몰라준 대도 희망안고 이 길을 가고가 리라는 노래를 부르시며 최전연 의 초소들을 찾고찾으시던 그이 의 선군혁명령도의 자욱자욱이

조선화 《새 세기의 아침》 은 선군장정의 길에서 아침을 맞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영상을 통하여 부강번영할 내 조국의 아침은 우리 장군님께서 끝없이 걷고걸으신 선군의 길 에서 밝아온다는것을 철학적으 로, 예술적으로 깊이있게 보여 주고있다.

더욱 눈물겹게 되새겨진다.

사연깊은 야전솜옷을 벗을새 없이 끊임없이 헤쳐가신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길이 있어 우리 조국의 영원한 행복과 번영이 담보될수 있었다는 시대의 진리 가 쟁쟁히 메아리쳐오는 뜻깊은 화폭이다.

인민군부대들을 찾으실 때마 다 병사들과 허물없이 자리를 같이하시고 그들의 소박한 예술소품공연도 보아주시고 사랑의 기념사진도 찍으시면서 친어버이의 사랑을 베풀어주시 였으며 크나큰 믿음과 사랑으로 인민군군인들이 조국보위초소 에서뿐아니라 사회주의건설의 전투장들마다에서도 혁명의 주 력군으로서의 위력을 높이 떨쳐

가도록 무비의 힘과 용맹, 슬기

豆唇外目

를 안겨주신 우리 장군님의 그 위대한 헌신의 세계를 무엇으로 다 칭송할수 있을것이가.

조선화 《우리 병사들의 노래 가 제일이라 하시며》는 어느 한 인민군구분대를 찾으시여 녀 병사의 소박한 노래를 들어주시 며 기뻐하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인자하신 모습을 감명깊게 형상 한것이다. 백두의 선군령장을 모신 뜻깊

은 자리에서 독창으로 노래 《내 나라의 푸른 하늘》을 긍지높이 부르는 녀병사의 얼굴 에 어려있는 무한한 행복감, 위대한 장군님께 자기들의 공연 을 보여드리는 영광을 지닌 녀 병사들의 환희의 감정이 생동하 게 형상되여있는 작품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높이 모시여 내 나라의 하늘은 영원히 푸르다는 것을 사상예술적으로 훌륭히 보 여주고있다.

출판화 《감익는 계절에 다시 오시여》도 끊임없이 인민군군인 들의 초소를 찾으시여 뜨거운 사 랑을 베풀어주시는 어버이장군님 의 동지애의 세계를 감명깊게 보여주는 훌륭한 작품이다.

붉게 익은 감알들이 주렁진 감나무를 배경으로 꿈결에도 그 리던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행복에 겨워 어쩔바를 몰라하는 지휘관과 녀병사들,사연깊은 감알을 들고 서있는 한 녀병사 의 모습에 대한 형상을 통해서 도 평범한 군인들과 한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또다시 초소를

भे

이 있다.

술가이지.》

디겠구나.》

딸애에게서 이런 질문을 받은적

지 못했나요? 만수대창작사쯤

에 가서 그림을 그려야 진짜미

그때 김호식동무는 말하였다.

바라고 그림을 그리는것이 아니

다. 제도가 하도 좋고 누리는 생

활이 하도 보람차니 그것을 화

폭에 옮겨놓지 않고서는 못 견

의 나날에는 병사화가로 이름떨

치며 미술전람회에 작품을 내놓

아 우수하게 평가되였다.그

작품이 바로 사람들속에 널리

알려진 《새들도 집이 있건만》

이다.그 그림 역시 위대한

장군님께서 전람회장을 돌아보

시며 몸소 보아주시였다.이것

이 계기가 되여 김호식동무에게

는 전문미술창작기관으로 갈수

무를 마친 후 로동자가 되였다.

그러나 김호식동무는 군사복

있는 넓은 길이 열리였다.

김호식동무는 어려서부터 그

《아버지는 그 무슨 명예를

《아버진 왜 진짜미술가가 되

至小

찾아주시여 친어버이정을 부어 주시는 장군님의 병사들에 대한 숭고한 사랑의 세계를 다시금 가슴뜨겁게 느끼게 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인민군대 를 조국보위의 제일결사대, 나 라의 부강번영을 위한 창조와 건설의 돌격대, 시대정신과 새 문화를 창조하는 선도자, 기수 로 내세워주시고 선군시대의 영웅들로 키워주시는 한없는 믿 음의 세계를 보여주는 작품들가 운데는 조선화 《선군시대의 영 웅건설자들과 함께 계시며》도

작품은 또 하나의 시대의 창 조물을 일떠세운 병사들이 너무 도 대견하시여 만족해하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거룩하신 모습 과 경애하는 최고사령판동지의 명령이라면 무조건 수행해내고 야마는 인민군대의 결사관철의 정신을 높이 솟은 발전소언제 와 군인건설자들의 승리자의 기상넘친 모습으로 훌륭히 형 상함으로써 선군이야말로 최대 의 애국이고 우리의 영원한 승 리이라는것을 뚜렷이 확증해주 고있다.

시대정신의 본보기를 창조할 뿐아니라 그것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여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맥박치게 하는것.바 로 이것이 부강조국건설을 현명 하게 이끌어오신 위대한 장군님 의 선군혁명령도의 중요한 특징 이였으며 여기에 선군의 위력으 로 주체혁명위업을 승리에로 이

그는 제대배낭에서 화구를 꺼

《이 땅을 가꾸며 이 땅에서

이것이 그의 꿈이고 포부였

다. 평범한 가정의 자식을 제대

군인당원으로 내세워준 고마운

품을 위해 마음껏 땀을 흘리고

내들고 병사시절의 화첩의 남은

페지에 붓글씨로 써내려갔다.

끄신 그이의 위대성이 있다.

인민군대를 본보기로 하여 우 리 혁명대오를 정예화하고 온 사회에 혁명적군인정신이 세차 게 나래치게 함으로써 우리 혁 명이 만난을 이겨내고 승승장구 할수 있게 하신 그이의 정력적 인 선군혁명령도가 낳은 위대한 현실을 이 불멸의 화폭이 뚜렷 이 증명해주고있다.

연필화 《몸소 병사의 소묘화 첩을 보아주시며》를 비롯한 많 은 영상미술작품들도 혁명적이 며 전투적인 새 문화를 창조하 는 선도자로 인민군군인들을 내 세워주시는 그이의 웅심깊은 마 음이 세차게 맥박치고있는것으 로 하여 오늘도 우리 군대와 인 민의 심장을 무한히 격동시키고 있다.

그 숭고한 화폭들을 하나하나 더듬어보면서 우리의 천만군민 은 반세기가 넘는 장구한 기간 불면불휴의 선군령도로 조국과 혁명,시대와 력사앞에 쌓아올 리신 어버이장군님의 위대한 업적은 조선혁명의 승리적전진 과 더불어 천추만대에 길이 빛 날것이라는 확신에 넘쳐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 그대로 이신 또 한분의 선군령장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시여 우 리 혁명의 승리는 확정적이며 머지않아 이 하늘아래, 이 땅우 에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평생 념원하신 사회주의강성국가가 자랑차게 솟구쳐오를것이다.

본사기자 백성근

싶었다. 그리하여

그는 문학창작의



마음안고 공원을 관리하고있다. 뜨 거 운 애 국 의 알 뜰 히 -선교구역공원, 유원지판리소 선교공원에서-본사기자 찍음

원 구 덬

김 정 일 동 지 께 서 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

《당과 수령의 현명 한 령도빝에 오늘 우 리 나라에는 근로자들 이 문화정서생활을 마 음껏 누릴수 있는 온 갖 조건이 마련되어있

0

0

습니다. 》 얼마전 우리는 청남구 은덕원이 훌륭히 개건되 여 탄부들과 가족들,청 남구의 주민들이 즐겨찾

는 봉사기지로 되였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을 찾았 다. 진한 청색과 연한 청 색의 외장재를 칠하여 한 결 산뜻한 느낌을 주는 외벽도 좋지만 바다의 갈 매기가 넘실거리는 물결 우에서 날아예는 모습을 형상한 장식그림, 구명대 를 형상한 부각장식 등은 마치 설레이는 바다를 헤 가르는 배전에 서있는듯

한 상쾌한 기분을 우리에 게 안겨주었다. 지배인 한세진동무의 안내를 받으며 홀에 들 어선 우리는 겉모양만 달라진것이 아니라 은

덕원의 내부도 완전히 면모를 일신하였다는것을 알수 있었다. 눈같이 하얀 천정과 연록색의

위 대 한 령 도 자 안온하면서도 청신한 감이 느껴 지는 은덕원의 내부에는 목욕탕 과 리발실,미용실,미안실,실 내물놀이장.청량음료점 등이 손님들이 리용하기 편리하게 꾸 려져있었다.

> 우리는 먼저 리발실에 들려보 았다. 머리를 시원하게 깎고 자 리에서 금방 일어서는 손님에게 기분이 어떤가고 물었더니 그는 싱글벙글 웃으며 이렇게 이야기 하는것이였다.

> 《그전에도 여기 와서 리발을 하군 했는데 이처럼 훌륭하게 꾸려진 환경에서 다시 봉사를 받으니 정말 상쾌합니다. 이제 목욕을 거뜬하게 하고나서 실내 물놀이장에서 수영까지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몸이 아예 날아 갈것 같을겁니다.》

> 그의 말을 들으니 우리의 기분 도 절로 상쾌해지는것 같았다. 우리는 미용실에서 방금 또 한차례의 봉사를 마무리하며 손 님에게 거울을 비쳐주던 허춘 실, 방명애동무를 비롯한 미용

사들의 이야기도 들어보았다. 《우리 미용실에 들어서는 녀 성들이 한결같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수도의 창광원에 온것 같은 심정이랍니다. 여기에 왔 다가 더 아름다와져서 나가는 녀성들의 밝은 모습을 볼 때면 우리 청남구의 거리와 마을이 더 환해지겠구나 하는 생각에 인민의 봉사자된 긍지와 보람을

느끼군 하는 우리들입니다.》

문에서 로동자로 일하는 김호식동 무는 이미 10여 년전에 신문과 방

송, 잡지를 통해 로동자미술애 호가로 널리 소개되였다. 하지만 그는 자만을 모른

다. 쉬임없이 그림을 그리고 글작품을 쓴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인민은 실생활을 통 하여 사회주의제도야말로 인 민대중에게 국가와 사회의 주 인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보 장하여주는 가장 인민적인 제 도이며 인민대중의 부궁부진 한 창조력을 납김없이 발양할 수 있게 하는 가장 생활력있 는 제도라는것을 절실히 체험 하였습니다. »

알고보니 지난 10여년동안 김호식동무의 생활에 꽃핀 자랑 은 이만저만이 아니였다. 조선 미술가동맹 맹원이 된 자랑이며 여러 미술전람회와 미술축전, 소묘축전에 작품을 내놓은 자 랑, 아들 화성이도 미래의 화가 로 키워가는 자랑…

그보다 더 큰 행복이 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로동자미 술애호가로서의 삶을 더욱 빛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지하자원과 산립자원, 해 양자원을 비롯한 나라이 귀중 한 자원을 보호하고 적극 늘 여나가며 나무심기를 전군중 적운동으로 힘있게 벌려 모든 산들에 푸른 숲이 우거지게 하여야 합니다.》

해양자원을 보호하고 늘인다 는것은 수산자원과 같은 해양자 원이 피해를 받고 줄어드는 현 상을 막고 그 량을 늘이며 지난 날 자원으로 리용하지 않던것도 해양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첨 단해양산업을 건설하여 효과적 으로 리용할수 있게 한다는것을 말한다.

해양자원을 보호하고 늘이며 효과적으로 개발리용하기 위하 여서는 국가해양자원개발과 해 양과학기술발전전략을 과학적 으로 작성하며 전망목표와 당면 한 과제를 정확히 제시하고 집 행하는것이 중요하다.

순안구역 역전동에 사는 김호식동무의 생활에서 나래를 펼쳐가고있는것인가. 여갈 불타는 결의를 담아 올린 언제인가 김호식동무는 어린 김호식동무의 편지를 몸소 보아

주신것이다. 꿈같은 믿음과 사랑을 받아안 은 그날 김호식동무는 이렇게

마음다지였다. (위대한 장군님, 정말 고맙습 니다. 어려워도 힘겨워도 신념 의 붓을 억세게 틀어쥐고 사회 주의 우리 생활을 화폭에 담아

가는 열정의 인간으로 살아가겠 습니다.) 그는 그날에 다진 결의대로 살아왔다. 그것을 말해주는 한 권의 작품집이 우리앞에 있다.

로동자미술작품집이라고 씌여진 이 책은 김호식동무가 위대한 장군님께 결의편지를 올 린 이후부터 만들기 시작한것이 다. 여기에는 서예와 선전화, 출 판화를 비롯한 수많은 미술작품 들이 들어있다.

그뿐이 아니다.로동의 여 가시간에 창작한 글작품들도 있다.

어떻게 되여 전문창작가도 아 닌 평범한 로동자가 미술과 문 학이라는 창작의 두 세계에 과 감히 뛰여들어 60나이를 바라 보는 오늘에도 변함없이 열정의

인 관리체계와 법률제도를 강화 하고 감독기능을 높이는것이 필

요하다. 해양자원과 해양환경에 대한 립체적인 조사와 분석체계를 세 우며 종합적인 해양정보자료기지 를 구축하고 자료봉사체계를 세 우는것도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0‡

특히 연안종합관리원칙에 따

라 해양자원을 종합적으로, 지

속적으로 개발리용하며 해양생

태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과학기

술적인 대책을 철저히 세워 어

느 한 해양자원을 개발리용하면

서 다른 해양자원에 피해를 주

거나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는데 주의를 돌

해양과학기술을 발전시키면

려야 한다.

양약품업, 해양에네르기개발 업, 해양광물자원개발업, 해양 정보산업을 건설한다면 모든 해 양자원을 종합적으로, 지속적으 로 개발리용하고 적극 늘여나갈

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중요한 해양 자원인 수산자원을 적극 보호하

호

고 풍부히하며 수산물생산을 늘

이기 위한 사업에 깊은 주의를

물고기에 대한 자원조사와 생

태조사를 진행하여 그 자원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게 하면서도

과학적인 물고기잡이방법을 적

용하여 수산물생산을 늘이기 위

고 수산자원보호증식구를 늘이

며 양식시설물만들어넣기와 돌

넣기, 새끼고기넣어주기를 적극

바다가양식을 대대적으로 하

한 대책을 바로세워야 한다.

보

돌리고있다.

Q

싶었다. 창조로 들끓는 그 벅찬 생활속에 시대가 요구하는 명화

후회가 없었다.

삶을 빛내리!》

폭이 있다고 그는 생각하였다. 하여 그는 로동속에서,생활속 에서 보고 느낀것을 화폭에 담 아갔다. 수많은 선전화, 풍경 림그리기를 좋아했다. 군사복무 화, 출판화, 연필화들이 쏟아져 나왔다. 전문창작가들의 수준에 비하면 미숙한 점이 많았지만 나라에서는 김호식동무와 같은 평범한 근로자들의 꿈과 리상을 소중히 여겨 국가미술전람회, 전국미술축전장에도 불러주어

> 게 해주었다. 김호식동무는 이 고마운 제도 를 위해 무엇인가 더 하고싶었 다. 화폭에 미처 다 담지 못한 사회주의 우리 생활의 아름다운

지난날 버리던 물고기의 내장

과 비늘, 조개껍질과 미세조류,

바다감탕으로 여러가지 해양약

품과 해양기능성식품, 생물연료

등을 생산하면 해양생물자원리

방법을 비롯한 현대적인 소금생

산기술을 연구도입하고 바다물

과 초염수, 소금밭의 모액에서

유용원소들을 추출하기 위한 바

다물화학공장을 건설하면 바다

물자원을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가지 조수력, 해상풍력, 조류,

파력발전장치들을 적극 개발하

면 재생에네르기자원을 대대적

으로 리용하기 위한 토대를 닦

해양광물자원을 효과적으로

을수 있다.

우리 나라 실정에 맞는 여러

지하초염수에 의한 소금생산

용의 폭을 넓힐수 있다.

작품과 함께 그들의 삶도 빛나 주고있다. 화폭을 글작품에 담아 노래하고

세계에 뛰여들었 다.때로는 밤을 밝혀가며 소설도 쓰고 현상응모에 내놓을 영화문 시 《맑고 푸른 저 하늘에 그

학도 썼다.

리고싶어라》, 《갈수록 그리워 지는 인민의 마음이여》, 《우 리 사는 이 땅이 제일 좋아라》 를 비롯하여 김호식동무가 로동 의 여가시간에 쓴 글작품만도 수십편을 헤아린다. 그중 여러 편은 출판물을 통해 널리 소개 되였다.

김호식동무는 말한다.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고 마운 제도를 목청껏 노래하는 이 보람을 어디에 비기겠습니 까. 시에도 썼듯이 맑고 푸른 저 하늘을 화판삼아, 종이삼아 사회주의 우리 생활을 끝없이 구가하고싶은것이 저의 심정입 니다.》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제도 의 고마움을 심장깊이 새길줄 알고 그 사랑에 끝없는 창조로 보답할줄 아는 인간이야말로 얼

마나 돋보이는가. 그런 삶은 수령이 알고 인민 이 안다. 한 로동자미술애호가 의 긍지높은 삶이 그것을 말해

본사기자 박옥경

를 과학적으로 하고 효과적인

개발방도를 연구하여야 한다. 해양관광자원을 보호하고 늘 이기 위하여 파도에 의하여 백 사장이 깎이지 않게 하고 해양 관광지가 오염되지 않게 하며 그것을 다양하게 꾸리는 방도를 찾아야 한다.

해양공간자원을 늘이고 효과 적으로 리용하기 위하여서는 해 양공학을 발전시키고 간석지건 설을 다그치며 현대적인 해양개 발수단들을 갖추기 위한 과학기 술적문제들을 해결하여야 한다.

공장과 도시의 버림물에 의한 해양오염을 미리막고 적조와 질 병의 예찰체계와 응급처리대책 을 세우는것도 수산자원을 적극 보호하기 위한 방도로 된다.

세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 나라에서 당의 의도대로 해양자 원을 보호하고 적극 늘이며 효 과적으로 개발리용한다면 강성 국가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크 게 기여할것이다.

김일성종합대학 지구환경과학부 교수 박사 박 진 길

더욱 흥성이게 될것이라는 확신 서 첨단해양산업인 공장화된 양 벽체, 바닥에 깐 미색의 타일이 을 가지게 되였다. 해양자원과 그에 영향을 주는 식장, 바다물담수화와 바다물화 《사실 엄동설한에 자체의 힘 해양환경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 학공업, 해양기능성식품업과 해 레드등의 밝은 불빛과 조화되여 으로 개건공사를 할 땐 정말 힘

화산과 온천우에

맹렬히 진행되는 화산활동과 부글부글 끓으면서 흐르는 온천 들을 어디서나 볼수 있는것이 이슬란드의 모습이다.

말그대로 이슬란드는 화산과 온천의 나라라고 말할수 있다. 이슬란드에서는 30여개의 크 고작은 화산들이 맹렬히 활동을 하거나 활동전야에 있다. 가장 맹렬한 활동을 벌리는 화산은 수도에서 동쪽으로 약 115km 떨어진 곳에 있는 화산이다.

이 나라에서는 섬가까이에 있 는 바다밑에서 화산활동으로 새 로운 섬들이 생겨나기도 하고 강한 지진으로 땅이 갈라지는 현상도 자주 보게 된다.

이슬란드의 또 다른 하나의

특징은 화산과 함께 온천이 많 은것이다.

이슬란드에는 큰 온천만도 며 빙하면적은 유럽에서도 가장 600개가 넘으며 곳곳에 여러 크다.

아프리카대륙의 동부에는 적도

선상에 놓여있는 케니아가 있다. 케니아의 북쪽은 사막 혹은 반사막지대이지만 서쪽은 세계 에서 두번째로 큰 아름다운 호 수 빅토리아호의 일부 수역이 차지하고있다. 수도 나이로비에 서 북쪽으로 약 140km 가면 아프리카에서 두번째로 높은 케 니아산 (5 199m)이 솟아있 다. 케니아산은 적도선상에 놓 여있지만 산꼭대기에 사시장철

가지 형태의 온천들이 있다. 이슬란드는 북극권가까이에 위치하고있는것으로 하여 땅의 대부분이 얼음으로 뒤덮여있으

적도의 아름다운 나라 케니아

눈이 덮여있어 경치가 매우 아 름답다.그리하여 적도상의 《눈산》으로 세계에 이름났 다. 케니아의 동남부연해의 바 다물은 맑고 깨끗하고 물온도도 적합하다. 바다가의 백사장에는 종려나무가 우거져있다. 맑고 푸른 바다, 금빛사막, 푸른 물 출렁이는 호수, 흰눈덮인 산은 케니아를 더욱 아름답게 장식해

주고있다. 케니아의 수도 나이로비는 해

발 1 700여m 되는 중남부의 고원에 위치하고있다. 이곳에는 1년내내 봄날처럼 꽃이 만발해 있어 사람들은 이 도시를 《꽃의 도시》라고 부른다. 이처럼 류달 리 아름다운 경치로 하여 케니 아는 이름난 관광국으로 되고있 으며 이곳으로는 해마다 수많은

세계에서 가장

이과쑤폭포는 남아메리카의 브라질 서남쪽 빠라과이와 아 르헨띠나의 국경지역 즉 빠라 나강의 지류인 이과쑤강과 합 류하는 지점에 위치하고있다. 세계에서 가장 넓은 폭포이며 남아메리카에서 가장 큰 폭포 의 하나이다.

이과쑤란 이름은 원주민들의 말로 《큰물》이란 뜻이다. 폭포

관광객들이 찾아오고있다. 관광 객들의 인기를 더욱 끄는것은 케 니아에 헤아릴수 없이 많은 야 생동물들이 있는것이다. 케니아 의 북부에는 세계적으로도 규모 가 큰 국립공원들이 있는데 여 기에서는 수많은 야생동물들이 자연상태에서 자라고있다.

넓은 이과쑤폭포

는 현무암으로 된 두 단계의 벼 랑턱을 거쳐 떨어지며 그 높이는 7 2m이다. 2 0여개의 크고작 은 물줄기로 갈라져 떨어진다. 폭포의 너비는 약 2 700m이 다. 떨어지는 물소리는 19km 떨어진 곳에서도 들린다. 폭포 일대는 등산 및 관광지로 유명

하다.

주 령 봉



시원한 아칩공기를 마시며 봄과 마음을 튼튼히 단련해가고있다. -중구역공원관리소 경림공원에서-본사기자 리충성 찍음

손길은 통일강성국가의 미래를

뜻깊은 조국해방 6 9 돐을 맞은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의 가슴마다에서 잃 었던 조국을 찾아주시고 이 땅우에 자주 로 존엄높고 선군으로 위력한 불패의 강 국을 일떠세우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정과 함께 또 한분의 천출명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대한 한없는 경모심이 뜨겁게 분출하고있다.

지금 우리 조국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 들의 악랄한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을 단 호히 쳐갈기며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 회주의길에서 자그마한 탈선도 없이 최 후승리를 향하여 돌진해나가고있다. 우 리 공화국이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 핵 보유국으로서의 위용과 존엄을 만방에 떨치며 세계정치흐름을 주도하고있는 경 이적인 현실은 결코 세월이 가져다준 우연 이 아니다. 그것은 선군혁명의 개척자이 시며 령도자이신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안아오신 력사의 필연이며 선군의 기치 를 높이 드시고 초강도강행군길을 이어 가고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정력 적인 선군령도의 결과이다.

하기에 해내외의 온 겨레는 백두의 선군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하시여 우 리 공화국을 그 어떤 대적도 감히 범접 못하는 천하무적의 강국으로 위용떨쳐 주시고 인민의 꿈과 리상이 현실로 꽃펴 나는 사회주의락원으로 빛내여주시며 조국통일의 밝은 앞날을 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 다함없는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 한평생 선군혁명령도의 길에 계시면 서 품들여 마련해주신 선군의 총대 를 더욱 억세게 틀어쥐고 조국의 안전과 혁명의 전취불을 수호하며 이 땅우에 통일된 강성국가를 일떠 세우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결 심이며 의지입니다. »

혁명령도로 마련해주신 무진막강한 자 위적억제력을 더욱 튼튼히 다져 나라 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철옹성같 이 수호하고 하루빨리 온 세계가 우리 러보는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뗘 세우시려는것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의 확고한 결심이며 절대불변의 의지 이다.

이런 철석의 의지를 지니시였기에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주체 101(2012)년 새해의 첫아침 찾으 신 곳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선군혁명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조선인 민군 근위 서울류경수제 1 0 5 땅크사단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체취가 그대로 어려있는 무적의 철갑부대를 찾으시여 근위병들과 팔을 끼고 어깨를 겯고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모습에서 온 겨레는 절세위인들의 숭고한 뜻을 새겨안으시고 선군혁명의 백승의 력사를 드림없이 계승해나가시려는 그이의 철석의 의지를 절감하였다.

그해 3월 내외반통일세력이 강행 해나선 대규모의 북침합동군사연습으로 하여 조선반도에 일촉즉발의 초긴장 상태가 조성되였을 때에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최대열점지대에 위치한 판 문점을 시찰하시였다.

위험천만한 최전방초소에 나가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친필비를 오래도록 바라 보시며 나라의 통일을 위하여 한평생 온 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과 어버이장군님의 영구불멸할

업적을 추억깊이 회고하시였다. 이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제국주 의련합세력을 물리친 위대한 조국해방 전쟁승리의 력사가 깃들어있는 정전담 판회의장과 정전협정조인장, 우리 인민 의 통일의지가 반영된 판문각과 통일각 을 잘 보존관리하여 통일된 조국에서 살 요구로 제시하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탁월한 선군 게 될 후대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고 2013년 3월전원회의의 력사적인 보 말씀하시였다.그이께서 단행하신 력사적인 판문점시찰은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들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필생의 념원을 반드시 실현하여 후대들에게 통일된 조국을 물려주실 확고한 신념과 의지의 발현이였다.

> 그 불타는 맹세를 안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한평생이 어린 혁명의 붉은기를 높이 추켜드시고 성스러운 선군혁명령도의 길을 줄기차게 이어가시였다.

>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성된 난국 을 타개하기 위한 전략전술도, 통일운 동을 새롭게 앙양시킬 방향과 방도도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선군사상과 업적에서 찾으시였으며 자 위적인 국방력의 강화가 강성국가건설 과 조국통일위업실현에 지향되도록 이 끄시였다.

> 핵과 미싸일을 중추로 하는 우리의 자 위적억제력은 반공화국적대세력의 무분 별한 군사적도전을 무자비하게 짓부시 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지키며 조국 통일의 밝은 앞날을 열어나가기 위한 정 의의 수단이다. 강위력한 자위적억제력 우에 평화도 있고 부강번영도 있으며 조 국통일도 있다.

해내외의 온 겨레에게 크나큰 민족적 자부심과 필승의 신심을 북돋아주고 내 외반통일세력들에게 준엄한 철추를 내 린 인공지구위성《광명성-3》호 2호 기의 성과적발사와 제3차 지하핵시험 의 성공은 우리 조국을 존엄높은 강국 으로 더욱 빛내이기 위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력적인 령도가 안아온 5천

년민족사의 특대사변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경제건설과 핵 무력건설을 병진시키는것을 외세의 지 배와 간섭을 철저히 배격하고 우리 민족 의 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의 력사적 위업실현을 앞당기기 위한 절박한 고는 온 겨레의 심금을 틀어잡았다. 제 국주의자들의 핵위협이 계속되는 한 경 제건설과 함께 핵무력건설을 절대불변 의 로선으로 틀어쥐고 핵억제력을 더욱 억척같이 다져나갈것이라는 그날의 선 언에서 온 겨레는 위대한 선군의 기치높 이 조국통일을 앞당기고 민족의 자주권 과 존엄을 대대손손 굳건히 지켜나가시 려는 절세위인의 확고부동한 의지를 페 부로 새겨안았다.

조국수호의 숭고한 사명감을 지니시 고 선군혁명령도의 길을 줄기차게 이어 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한 령도 에 의해 내외원쑤들의 비렬한 반공화국 고립압살기도와 반통일대결책동은 걸 음마다 분쇄되였으며 강성국가건설의 휘황한 앞길이 활짝 열리고있다.

민족사에 일찌기 없었던 경이적인 사 변들로 아로새겨진 잊지 못할 나날들은 북과 남,해외의 온 겨레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시였기에 조국 과 민족의 운명도, 조국통일의 밝은 미 래도 확고히 담보되여있다는것을 철의 진리로 새긴 격정의 나날들이였다.그 신념을 가슴에 새기며 지금 우리 겨레는 필승의 신심과 락판을 가지고 내외반통 일세력의 도전을 무자비하게 짓부시면 서 조국통일운동을 계속 힘차게 다그쳐 나가고있다.

그렇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우리 민족의 운명이시며 미래이시다.

천하제일명장이시며 민족의 위대한 태양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고 그이의 령도따라 나아가는 우리 민족의 앞길은 끝없이 밝고 창창하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선군사상과 령도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끝없 이 빛내여나가시는 천출위인을 높이 모시였기에 김일성민족,김정일조선은 머지않아 반드시 통일강성국가로 온 누 리에 빛을 뿌리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십 철 영

대결의 빗장을 그대로 두고 열수 있는가 협력의

지난 15일 남조선집권자가 《8.15경축사》라 는것을 하였다. 여기에서 그는 그 무슨 《통일준비》 에 대한 장광설을 늘어놓으면서 《환경협력의 통로》 니, 《민생의 통로》니, 《문화의 통로》니 하고 《생활 공동체의 형성》을 운운하였는가 하면 《대립과 고통 의 력사를 극복》하여야 한다고 가살을 떨었다. 한 편 분렬의 비극이 지속되고 북남관계가 악화일로 를 걷고있는 원인이 마치도 그 누구의 《핵위협》에 있는듯이 력설하며 《핵개발과 미싸일발사》로 《위 협》하는것은 《용납되지 않을것》이라고 흰소리도 쳤 다. 한마디로 말하여 남조선집권자의 《8. 1 5경축 사》라는것은 북남관계문제에 대한 톡톡한 해결책 은 없고 종전의 립장을 되풀이한것으로서 실속이 없는 겉치레, 책임전가로 일관된 진부한것이다.

실제로 《경축사》의 그 어디에도 북남관계문제 의 실질적해결을 위한 성의와 진지한 태도가 반 영되여있지 않다.

우리는 8. 1 5를 계기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을 발표하여 남조선당국에 민족분렬의 불행 과 고통을 끝장내고 북남관계개선의 전환적국면 을 열어나가기 위한 원칙적립장을 천명하였다. 현시기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필수적문제들을 담 고있는것으로 하여 성명은 내외의 공감을 불러일 으켰다. 그러나 남조선집권자는 우리의 성명에 대한 대답은 없이 동문서답격으로 《환경, 민생, 문화의 통로》니 뭐니 하는 시시껄렁한 문제들만 들고나왔다.

지금 북남사이의 불신과 대결이 해소되지 못 하고 극단에로 치닫고있는것이 과연《환경,민 생, 문화의 통로》를 열지 못해서인가. 북남관계악 화의 근원이 정치군사적대결상태에 있다는것은 누구도 부정할수 없다. 그것을 해소하지 않고 어 떻게 북남사이의 협력과 교류를 실현할수 있으며 화해와 단합, 통일을 저해하는 법적, 제도적장벽 을 허물지 않고 어떻게 대화와 접촉, 래왕을 정 상화할수 있겠는가.

남조선에서 현 당국이 출현하여 북과 남이 여 러차례 마주앉기도 하고 일련의 인도주의협력사 업도 진행하였다. 하지만 그것은 끝내 관계개선 에로 이어지지 못하였다. 바로 첨예한 정치군사 적대결이 북남관계진전의 앞길을 가로막고있기 때문이다. 현실은 근본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북남사이에 그 어떤 협력도 제대로 할수 없고 관 계개선의 문도 열수 없다는것을 립증해준다.

남조선당국이 부당하기 그지없는 《5.24조치》 를 계속 유지하고있는것은 동족에 대한 불신과 적대 감의 뚜렷한 표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집 권자는 아무런 명분도 없는 《5. 24조치》의 해제 에 대해 전혀 입에 올리지 않았다. 북남협력의 길이 반통일적인 《5. 24조치》에 의해 꽉 막혀버렸는데 그것을 그대로 두고 《환경, 민생, 문화의 통로》를 열 자고 했으니 모순도 이만저만한 모순이 아니다. 남 조선집권자가 《경축사》에서 운운한 문제들은 지금 과 같이 정치군사적대결이 극한계선에 다달으고있 는 형편에서는 그야말로 실현불가능한것이다. 결국 남조선집권자는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초미의 필수 적문제들은 외면하면서 저들의 대결정책을 《통일》 이라는 귀맛좋은 말로 포장한 《경축사》를 제멋에 겨 워 외워댔다. 오죽했으면 남조선 각계가 당국자의 《경축사》에 대해 《빈껍데기연설》, 《근본적인 문제를 외면한 경축사》라고 비난하였겠는가.

더우기 문제시하지 않을수 없는것은 남조선집 권자가 우리의 핵과 미싸일을 걸고들며 또다시 《위협》타령을 늘어놓은것이다.

지금 조선반도에서의 군사적위협은 북이 아니 라 남에서 오고있다. 북침핵선제공격각본인《맞 춤형억제전략》이 정식 적용되는 《을지 프리덤 가 디언》합동군사연습의 강행은 우리 공화국에 대 한 로골적인 침략위협이며 엄중한 군사적도발이 다. 인천에서 곧 아시아경기대회가 열리게 되는 데 그것을 앞두고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 연습의 총포성을 요란스레 울리는것이 평화에 대 하 위협이 아니란 말인가.

남조선당국은 우리의 자위적억제력을 터무니없 이 걸고드는 온당치 못한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 다. 그것으로 대결정책과 외세와의 반공화국공조 를 합리화하기에는 내외여론의 눈이 너무도 밝다.

북남관계개선의 전환적국면을 열어나가기 위 해서는 우리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에서 언 급한 근본적인 문제들이 반드시 해결되여야 한 다. 이것을 거부하는 그 어떤 행위도 민족의 화 해와 단합, 자주통일을 바라지 않는 천만부당한 처사로서 온 겨레의 규탄을 면할수 없다.

최 철 순

폭행살인만행의 주범인 김관진역도는 분노한 남조선민심의 심판을 면치 못할것이다

조 국 평 화 통 일 위 원 회 서 기 국 보 도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 국은 남조선의 현 《정권》이 윤일병살인사건의 주범인 당 시 괴뢰국방부 장관이였던 청와대 안보실장 김관진역도 를 끼고도는것과 관련하여 이를 규탄하는 보도 제1072 호를 발표하였다.

보도는 다음과 같다. 최근 남조선피뢰군내에서

유일병집단폭행 및 살인사건 을 계기로 지금까지 숨겨졌던 각종 살인만행과 인권유린행 위가 련이어 폭로되여 날이 갈수록 커다란 사회적물의를 일으키며 세인을 경악케 하고 있다.

남조선언론들이 공개한 자료 에 의하면 지난 한해에만도 괴 뢰군내에서 각종 기합과 집단구 타로 하여 4만 5 000여명이 장애자,정신병자로 되였고 2 000여명이 탈영하였으며 그 중 무기와 총탄, 수류탄까지 휴 대하고 탈영한자는 700여명이 나 된다고 하다.

괴뢰군사병들이 폭행에 견 디지 못하여 매일과 같이 자 살의 길을 택하고있는데 이러 한 자살자가 괴뢰군 전체 사

고 하다. 지금 남조선의 야당을 비롯 한 각계층은 괴뢰군내에서 발

생하고있는 참혹한 인권유린만 행 특히 윤일병살인사건의 주 범인 당시 괴뢰국방부 장관이 였던 청와대 안보실장 김관진 역도를 엄벌에 처할것을 강력 히 요구하고있다. 극악한 호전광이며 동족대결

분자인 김관진역도는 2010년 괴뢰국방부 장관자리에 올라앉 자마자 괴뢰군을 《북과 싸워 이 길수 있는 전투형군대로 만들기 위해 군기를 확립해야 한다.》 고 줴쳐대면서 야만적인 기합과 폭행을 로골적으로 조장시켜온 자이다.

김관진깡패는 《폭력은 군을 유지하는 기본수단》이라고 공공 연히 뇌까리며 군부졸개들과 사 병들을 동족대결의 미치광이로 만들고 극악한 인간증오사상과 야수성으로 길들이면서 윤일병 살인사건과 같은 인권유린만행 들을 괴뢰군내에서 흔히 있을수 있는 례상사로 만들어놓은 장본 인이다.

이 무지막지한 악당때문에 괴뢰군은 하급사병들을 개취 망자의 70%를 차지하고있다. 급하면서 구타, 폭행하고 가래

침까지 핥아먹게 하다 못해 집단적으로 때려죽이는 전대 미문의 야수의 무리, 패륜패덕 의 깡패집단으로 더욱 전락되 였다.

2011년 괴뢰해병대 총기란 사사건으로부터 윤일병폭행사 망사건에 이르기까지 온 남조 선땅에 커다란 충격을 몰아온 괴뢰군내에서의 대형참사들은 모두 김관진역도가 국방부 장 판벙거지를 쓰고 저지른 사건 들이다.

남조선 각계에서 김관진역도 의 책임을 묻는것은 너무도 당 연한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괴뢰군살인사건들의 주범인 김 관진놈을 처벌하기는커녕 감싸 돌면서 분노한 민심을 눅잦혀보 려고 별의별 오그랑수를 다 쓰 고있다.

집권보수패당이 앞장에 서 서 《안보실장의 경질을 요구 하고있는것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라느니, 《책임 은 륙군참모총장이 지면 다 된것》이라느니, 《김판진이 몰 랐을수도 있다. 》느니 뭐니 하 면서 로골적으로 역도를 비호 두둔해나서는 한편 괴뢰국회

에 《군인권개선 및 병영문화 혁신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다. 괴뢰국방부에 《국방인권 협의회》를 설치하고 《전군특 별인권교육》을 실시한다, 《윤 일병폭행사망사건 전면재조 사》를 한다 어쩐다 하는것은 청와대의 지령에 따른 《김관 진보호》책동이며 민심에 대한 기만술책에 불과하다.

김관진역도와 같은 살인마를 청와대 안보실장으로 들여앉히 고 치마폭에 싸안고도는 현《정 권》이야말로《인권말살정권》, 《살인정권》이다.

청와대가 지금과 같이 김판 진역도를 그냥 끼고돈다면 자 기의 얼굴에 계속 먹칠을 하게 될것은 물론 괴뢰군내에서의 참혹한 인권유린만행도 날로 더욱 비호조장되게 될것이며 남조선사회의 파쑈화는 보다 심화될것이다.

민심은 천심이고 민심을 거역하는자 천벌을 면치 못 한다.

남조선의 각계층은 괴뢰군내 폭행살인만행의 주범인 김관진 놈을 민심의 이름으로 단단히 심판해야 할것이다.

아프리카를

인권재판정이 《山口》 최근 미국대통령 오바마가 백악관에서 는 고문은 하지 못하게 되여있다. 전쟁포로 당 나라 주재 자국대사관들에 대한 안전보

기자회견을 벌려놓고 9.11사건직후 혐 의자들을 고문한것은 잘못이라고 인정하면

서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였다. 세계면전에서 인권유린의 왕초로서의 몰 골을 미국이 스스로 드러낸것 자체는 평가 할만 하다.

그러나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미국의 인권유린범죄는 이미 세상에 드러날대로 드러나 별로 새삼스러운것이 못된다.

세계도처에서 감행되고있는 미국의 인 간살륙만행에 대해 렬거하자면 끝이 없 다. 다른것은 다 그만두고 판따나모에 있 는 미해군기지감옥실태만 보자.

판따나모미해군기지감옥은 오늘 중세기 적인 고문장, 인권교살장으로서 미국의 정 체를 여지없이 폭로해주는 대명사로 되고 있다. 새 세기에 들어와 미국이 감옥의 수 감자들에게 가한 고문은 지난 세기 파시스 트세력이 감행한 범죄에 못지 않은것이 다. 미국방성의 자료에 의하면 이곳에는 수백명의 《테로》혐의자들이 감금되여있었 으며 그들중 많은 사람들이 몇년동안 판결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인체실험만행이 거 모이다. 아무런 법적소송도 재판도 없이 종 신형이나 다름없는 감옥살이로 하여 수감 자들은 극도의 절망상태에 빠져있다.

을 받지 못한 상태로 있었다.

미국은 판따나모미해군기지감옥에서 고문 을 반대하여 수감자들이 단식롱성을 한다고 하여 완전무장한 미군병사들을 내몰아 그들 을 의자에 꽁꽁 묶어놓고 코구멍에 호스를 밀어넣는 방법으로 강제급식을 시키는 범죄 도 저지르고있다.

공인된 국제법에는 사람에게 고통을 주 의 강한 반발에 부딪치게 될것이 두려워 해

대우에 관한 제네바협약도 억류중의 전쟁 포로들을 인도주의적으로 대우하고 보호하 며 그들을 죽게 하거나 건강을 위태롭게 하 는 행위들을 금지하고 그러한 행위를 감행 했을 때에는 엄중한 범죄로 인정하고 법적 제재를 가할것을 규제하고있다.

그러나 《반테로전》의 간판밑에 미국은 공 인된 국제법과 전쟁법규들을 란폭하게 유 린하면서 무고한 사람들에게 《테로분자》혐 의를 씌워 재판도 없이 몇년씩 가두어놓고 참기 어려운 고문을 들이대고있다. 이런 극 악무도한 인권유린범죄가 문명을 자랑하는 오늘의 세계에서 거리낌없이 감행되고있다 는것 자체가 인류의 수치가 아닐수 없다. 인권존중을 요구하는 인류에 대한 이보다 더한 도전, 모독이 어디에 또 있겠는가, 국 제대사령은 이미전에 판따나모미해군기지

감옥을 현대판강제수용소로 락인하였다. 미국집권자가 늦게나마 수감자들에 대한 고문만행을 자인한것은 세계면전에서 흉악 한 인권유린왕초로서의 저들의 더러운 몰 골을 더는 감출수 없게 되여 울며 겨자먹기 로 인정한데 불과하다.

문제는 오바마가 세계도처에 널려있는 리낌없이 감행되고있는 곳도 바로 판따나 비밀감옥들을 모두 없애겠다는 선거공약을 내걸었지만 오늘까지도 그것들이 존재하고 있다는데 있다.

요즘 미국은 세계도처에 설치한 비밀감 옥들과 관련한 보고서발표문제를 두고 골 머리를 앓고있다. 미국은 날로 커가는 국제 적압력에 몰리워 비밀감옥과 관련한 보고 서를 발표할것처럼 너스레를 떨어왔다. 그 러나 문제의 보고서가 발표되는 경우 중동 을 비롯한 세계 여러 지역에서 지역주민들

대국들의

두기 위한것이 바로 이번 미

국 — 아프리카수뇌자회의의 목

알려진바와 같이 아프리카는

자원보물고로 불리울 정도로

풍부한 자연부원과 농업생산잠

재력, 인적자원으로 하여 경제

발전잠재력이 큰 대륙이다. 원

료의 모든 종류에 있어서 아프

리카나라들은 사실상 세계적수

준이다. 여러해째 지속된 경제

위기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에

서 높은 경제장성이 이룩되고

있는것은 세계의 어느 다른 지

역보다도 투자가들의 눈길을

무진장한 주요원료원천지를

가지고있는 아프리카대륙을

넘겨다보는 미국의 눈초리는

세계의 주요경제대국들이

그야말로 탐욕적이다.

모으고있다.

여 국제적으로 규탄과 배격을 받아 동네북 신세가 되고있는 미국은 비밀감옥문제까지 공개되는 경우 더 큰 국제적비난이 쏟아져 나올가봐 전전긍긍하고있다.

지도저러지도 못하고있는 미국의 처지야말 로 범의 꼬리를 잡은 격이라고 야유, 조소

《인권존중의 본보기》라고 자처하던 미국 이 꼴좋게 되였다.

국제무대에서 아마 미국만큼 《인권옹호》 를 열심히 부르짖는 나라는 없을것이다. 그 들은 유엔무대에서까지 주제넘게 《인권옹 호》를 제창하면서 《국제인권재판관》행세를 곧잘하고있다. 하지만 지옥세계를 련상케 하는 비밀감옥들을 다른 나라에 설치하고 수감자들에 대한 고문, 살인만행들을 뻐젓 이 감행하고있는 미국은 입이 열개라도 《인

죄를 지었으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 국제법도, 세계적인 반대도 무시하고 세 상이 좁다하게 돌아치며 감행하고있는 미 국의 인권유린행위는 반인륜적범죄로서 절 대로 묵과될수 없다. 미국은 세계인권재판 정의 피고석에 스스로 나앉아야 마땅하다.

리 현 도

인도네시아의 아름다운 도시 반둥은 꽃의 도시로 널리 알려

높고 험한 산들로 에워싸여있 는 반둥시는 해발 700m의 높 은 지대에 자리잡고있다. 1년내내 날씨가 서늘하고 공

기가 맑은 이 도시는 인도네시 식물원은 경치가 매우 아름다 아의 이름난 피서지로, 관광지 우며 규모와 시설에 있어서 열 로 되여있어 🎏 명절이나 휴식 일이 되면 많

은 사람들이 🎥

로 찾아온다. 반둥회의를 기념하여 명명한 아시아-아프리카거리 량쪽의

인도로에는 열대나무들이 줄줄 이 늘어서있다. 이 나무들사이에 조성된 화 단과 록지들에서는 꽃들이 앞 을 다투어 피여나 마치 전체 반 둥시가 하나의 대화원처럼 보

인다. 반둥시교외에는 산발들이 기 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복을 이루고있고 산에는 나무들 위대 한 김일성동지의 존함을

이 무성하다.

를 차지한다.

하기에 사람들은 이 도시를 꽃의 도시로 부르고있다. 꽃의 도시 반둥에서 얼마 멀

지 않은 곳에는 세계적으로 이 름있는 보고르식물원이 있다. 밀림으로 둘러싸여있는 이

휴식의 한때를 보내려고 이곳으 대식물원가운데서 세계 첫자리

오늘도 아름답게 피여나고있 는 김일성화는 바로 이곳 보고 르식물원에서 육종되었으며 그 후 세상에 널리 퍼지게 되였다. 인도네시아의 전 대통령 수카 르노는 류달리 아름답고 고상한 정서를 자아내는 이 진귀한 꽃 에 세상에서 가장 빛나고 영생 하는 이름을 지으려는 자국인민

모시기로 하였다.

대통령은 이 꽃을 잘 키워 위대한 수령님께 기쁨을 드리고 저 식물학자에게 그 재배기술을 완성할데 대한 과업을 주었다. 김일성화를 자래우는 일에

한생을 바치게 된것을 가장 큰 행복으로 여겨오던 식물학자는 자기의 뜻을 이루지 못한채 세 🚟 상을 떠나면 서 김일성화 가 조선에서 🚅 아름다운 꽃

기였다. 위대한 수령님을 끝없이 흠모 하며 따르는 이곳 식물학자 들은 온갖 정성을 다하여 키워 온 김일성화를 어버이수령님께 삼가 올리였다.이렇게 되여 김일성화는 주체의 조국, 선군조 국땅에 뿌리를 내리고 활짝 피 여나게 되였다.

으로 필것을 바란다는 유언을 남

오늘은 인도네시아독립 69돐 이 되는 날이다.

아프리카를 쟁탈하기 위한 대국들의 각축 전이 치렬해지고있다.

리카수뇌자회의가 진행되 이번 회의에 아프리카의 거의

모든 나라 지도자들이 참가하였 다. 회의에서 미국은 아프리카 대륙과의 경제관계를 촉진하기 위해 300여억US\$를 투자하 겠다는것을 발표하였다.이와 함께 오바마는 아프리카에 대한 무역과 투자를 추동하기 위해 아프리카에서의 기업활동에 판 한 대통령자문리사회를 내오기

도 하였다. 오바마는 이번 회의가 아프리 카에서 잃어버린 저들의 영향력 을 되찾고 이 대륙에서 확대되 는 다른 대국들의 세력권을 막 기 위한데 주요목적이 있다는것 을 숨기지 않았다.

지난 시기 미국은 아프리카대 ^ㅣ 륙의 발전을 촉진시키고 경제장

이란이슬람교선전기구 위원

장이 10일 팔레스티나의 가자

성을 고무추동하겠다느니, 지역 카의 천연자원개발에서 자기 얼마전 미국에서 미국-아프 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 노력하 겠다느니 뭐니 하는 소리를 장 《협조》에 대해 떠들어대였다.

> 하지만 이것은 아프리카대륙 을 장악통제하며 신식민주의지 배를 실현하려는 저들의 검은 속심을 가리우기 위한 기만술책 에 불과하였다. 미국은 아프리카의 원료자원

을 헐값으로 빼앗아가고 이 지 역 나라들로부터 수입하는 제품 들에 까다로운 조건부를 붙이였 는가 하면 저들의 말을 잘 듣지 않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여왔다. 이로 하여 미국은 아프리카에

서 배척을 받고 밀려나기 시작 하였다. 다른 나라들이 그 자리를 차

지하기 시작하였다. 로씨야는 최근년간 아프리

의 지위를 확대하기 위해 눈 에 뜨이는 노력을 기울이였 황하게 늘어놓으며 《원조》와 다. 18개의 큰 로씨야회사 가 4 0건의 계획을 리행하고 있다.

둘러싼

유럽동맹은 지난 4월 두 대 륙사이의 협조범위를 확대할 목적밑에 브류쎌에서 40여 개 아프리카나라와 20개 유 립나라의 국가수반들과 관리 들이 참가하는 제4차 유럽동 맹 — 아프리카수뇌자회의를 진 행하였다.

아프리카나라 지도자들이 참 가하는 대규모적인 수뇌자회의 가 세계 각곳에서 빈번히 진행 되는 속에 국제적으로 정치, 경 제 등 여러 분야에서 아프리카 와의 협력관계가 강화되고있으 며 이것은 미국을 매우 불안케 하고있다.

이렇게 놓고볼 때 지난 시기

장대책을 강화하고있다. 동맹국들에 대한 전화도청행위와 관련하

정세분석가들이 피해망상증에 걸려 이러

하고있는것은 우연하지 않다.

권범죄자》의 정체를 감출수 없다.

인권유린왕초의 정체가 여지없이 드러난 조건에서 미국은 이제 더는 다른 나라들에 대해 감히 《인권》이 이렇소저렇소 할 체면 이 없다. 미국이 앞으로도 《인권옹호자》의 행세를 한다면 그것은 인권존중을 선차적 요구로 내세우는 세계민심에 대한 로골적 인 도전, 참을수 없는 모독으로 될것이다.

에 아프리카나라들을 붙잡아 를 얻기 위해 싸움을 벌릴것

모든 수단을 다 하여 아프리카 의 연료 및 광 형성된 경제 및 정치관계체계 물자원에 접근할수 있는 권리

> 이라는것이 전문가들의 견해 이다. 풍부한 자연부원을 가지고있 는 아프리카나라들에 있어서 그 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취급하는 가 하는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 로 나서고있다.대륙의 안정과 발전은 그 누가 선사하지 않는 다. 아프리카의 주인은 오직 대

륙인민들자신이다. 지금 아프리카나라들은 지역 의 일체화와 독자성을 강화하 는 방향에서 자기가 선택한 길 을 따라 나아가고있으며 다른 대륙나라들과의 협조에서 진실 과 거짓, 나라의 실정에 맞는것 과 맞지 않는것을 구분하여 자 기 인민의 의사와 요구에 따라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

김 철 룡

일본정객들의 집단적인 야 스 구 니 진 쟈 참 배 놀 음

있다.

일본에서 15일 패망일을 계 기로 극우익정객들이 집단적으 로 야스구니진쟈를 참배하는 놀 음을 벌려놓았다.

이날 집권자가 야스구니진 하였다. 쟈에 제물비를 낸데 이어 총 무상과 국가공안위원장,행 정개혁담당상을 비롯한 내 각각료들이 진쟈를 참배하 였다.

또한 《모두가 야스구니진쟈를 참배하는 국회의원모임》에 소속 되여있는 84명의 국회의원들이 진쟈로 몰려가 군국주의를 고취

일본정객들의 이러한 행동 은 침략력사를 로골적으로 미 화분식하는 망동으로서 국제

사회의 비난을 자아내고

우루과이정부 이스라엘군의 폭압만행 가 7월 31일 성

*

이 벌어졌다. 시위에는 반전단체 지대에서 감행되고있는 이스라

이스라엘의 침략행위를 규탄하 였다. 성명은 녀성들과 어린이 들을 포함한 민간인들을 대상으 로 감행되는 이스라엘의 대량살 륙만행은 그 무엇으로써도 정당 화될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영국의 런던을 비롯한 여러 도

시들에서 9일 반이스라엘시위들

명을 발표하여 가자지대에 대한 성원들을 비롯한 수만명의 각계 다. 그는 이스라엘의 군사적공 층 군중이 참가하였다. 시위참가 자들은 《팔레스티나에 자유를》, 《살륙만행을 중지하라》 등의 구호 들을 웨치면서 가자지대에서 감 행되고있는 이스라엘의 야수적인 살인만행을 준렬히 규탄하였다. * *

엘군의 살륙만 규란 행을 비난하였 격으로 가자지대에서 적수공권 의 수많은 어린이들이 목숨을 잃고있는데 대해 언급하였다. 적들은 비렬한 목적을 달성하

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있다고 하면서 그는 가자지 대에서 벌어지고있는 류혈참극 을 끝장내기 위해 런대를 강화 할것을 모든 이슬람교도들에게



여러 나라들 협조 로씨야와 에짚트가 12일 무 역 및 군사분야에서 두 나라사 이의 협조를 확대하기로 합의하

하고있다.

였다.

합의는 에짚트대통령의 로씨 야방문과정에 이룩되였다.

이에 앞서 10일 웰남과 라오 스는 경제, 문화, 안전, 국방분 야에서 쌍무협조를 강화해나가 기로 하였다.

【조선중앙통신】

¬-411283 (정기간행물번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제외조 →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제외조 → 사회주의교양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파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